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산업

제 1189 호
(2026년 1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2026년도 한국원양산업협회 신년사 / 04
- 협회, 2026년 사무식 개최 / 05
- 원양어업의 현실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 06
- 2025 올해의 수산인상 시상식 개최 / 07
- 제1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08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 09



이달의 요리

- 동태찌개 / 16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415달러 / 17
- 참치어업 동향
 - 범블비·코스트코, 美 정부 상대 관세 환급 소송 / 18
 - 美 의회, 中 IUU 선박 겨냥 불법어업금지법 통과 / 19

- WCPFC,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MP 채택 / 20
- WCPFC 날개다랑어 TAC 및 국가별 배분, 내년 논의 / 21
- 4개 태평양 도서국, WCPFC서 미국과 참치 조약 체결 / 21
- 日 10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량 10년 내 최저 / 22
- 태국 참치 통조림 미주 수출 5년 내 최고 / 23
- 태국산 통조림 아프리카 수출량 16% 증가 / 24
- 스페인 참치어업, 젊은 세대의 직업 인식은 긍정적 / 25
- WCPFC 관리 절차 합의의 의미 / 25
- 투니콘스, BBNJ 대응 국제공해어업연합 창설 지지 / 26
- 美 국방 법안에 참치 조약 내용 포함 / 27
- PNG 참치산업, 임대국에서 운영 주체로 / 27
- 인도, 프리미엄 참치 거점 육성 / 28
- 베트남 참치 정책, 규제에서 조정 국면으로 / 28
- 태국 참치 통조림 EU 수출 증가 / 29
- EU 참치 통조림 수입량 26% 증가 / 30
- EU 참치 지속로인 수입량 지난 5년 중 최대치 / 31
- 호주 참치 시장, 인증 중심 구조로 이동 / 32
- 베트남, 모든 어선 데이터베이스 등록 / 32
- 에콰도르 참치업계, 완제품 수출로 전환 / 33
- PNG 참치 산업, 선단·가공 확대로 성장 지속 / 34
- 태평양 보호구역 어업 개방 조치 합의 / 35
- 日, 원양 참치 연승어선 감척 방침 공개 / 35
- 美, 태평양 도서국 관세 완화로 도서국 경쟁력 제고 / 36
- 2025년 글로벌 참치 산업 결산 / 37

원양산업 제1189호 발행 2026년 1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영규**
 편집인

Contents

- 피지 국영기업, 수직계열화 기업으로 전환 추진 / 38
- 美, 연안 어업 보호 명분 IUU 제재 강화 / 39
- 中 참치 선사, 신조 선망선 투입으로 선단 현대화 / 39
- 베트남, 태평양 참치 어획량과 어선수 감소 / 40
- 소말리아 인근, 해적 활동 재확산 조심 / 41
- 日, 새해 참다랑어 경매 역대 최고가 기록 / 41

■ 오징어어업 동향

- 페루 훔볼트오징어 가격 하락 압력 확대 / 42
- 페루 훔볼트오징어 어업, 지속가능성 진단 / 43
- 아르헨티나, 오징어 성어기 앞두고 단속 강화 / 44
- 일렉스 오징어, 높은 가격·中 재고 문제 등 이슈 / 44
- 아르헨, 일렉스 오징어 조업 1월 초 시작 / 45
- 페루 훔볼트오징어, 침체를 넘어 회복 국면 진입 / 46
- 中 선단 남서대서양 일렉스오징어 조업 호조 / 47
- 페루 훔볼트오징어 9월 어획량 71% 증가 / 47

■ 명태어업 동향

- 러, 노후 선박 규제 대폭 강화 / 48
- 안정적이던 동베링해 명태 자원 30% 급감 / 49
- 러, 수산물 수출관세 재도입 검토 / 50
- 러 명태 H&G 가격, 여전히 고가 유지 / 50
- 러, '25년 극동 명태 어획량 215만 톤 / 51
- 러, 극동 명태 A시즌 어기 개시 / 51
- 러, 서베링해 명태 TAC 확대 검토 / 52
- 러 명태 수출 경쟁력 강화 / 52
- 美 명태 필렛, 러 명태 관세 포함가보다 저렴 / 53

■ 공치어업 동향

- 日 공치 어획량, 6만 톤 돌파 / 54
- 日, 공치 어획량 세계 1위 국가로 복귀 유력 / 54
- 日 언론, 日 공치·살오징어 어획량 개선 원인 분석 / 55
- 日-러 어업 협상 연내 결렬 / 56

■ 각국 수산 동향

- 美 상온보관 수산물 소매 매출, 11월에 반등 / 57
- 日, 中 원양선단 단속 위해 남미 4개국에 물자 지원 / 57
- 美, 수산물 규제 완화 의견 수렴 재개 / 58
- 美 수산물 수입업체, 전년 대비 관세 6배 증가 / 58
- 美, 연말 연휴 앞두고 이빨고기 수요 급증 / 59
- 라-노르웨이, 2026년 바렌츠해 쿼터 합의 / 59

쉬어가는 난

- 바다여 - 한용운 / 60

국내 수산 정보

- 12월 오징어 국내 동향 / 61
- 12월 명태 국내 동향 / 63

2026년도 한국원양산업협회 신년사

위기를 넘어 원양산업 재도약 기반이 되기를

존경하는 원양산업 및 수산업 종사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은 지난 70년 동안 여러 난관 속에서도 바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원 및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대한민국 식량 안보 및 수출산업의 최일선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요즘에 와서 국제정세 및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식량자원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연근해 어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원양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양산업의 여건은 녹록지 않아서 무역장벽 강화, 공급망 불안, 국제규범 강화 등 외부 환경적 어려움과 함께, 원양업계의 경영 불안정, 선원 인력난 심화, 선박 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 식량산업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정책적 지원과 구조적 혁신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4일 국회에서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회 국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원양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등의 실질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부산수산정책포럼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원양산업인 및 수산인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 난관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 원양산업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협회는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및 국회와 소통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고, 2027년 원양산업 70주년을 맞이하여 원양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붉은 말’을 상징하는 병오년은 강인한 생명력과 진취적인 기상을 의미합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우리 원양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인 여러분께도 이러한 역동적인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올 한 해가 원양산업 재도약의 기반이 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김영규



협회, 2026년 시무식 개최

70주년 앞두고 구성원의 헌신과 전문성 강조



우리협회는 1월 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영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김영규 회장은 시무식 인사말에서 외국인 해기사 제도 시행,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국회 국정토론회 개최 등 지난해 주요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통해 원양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협회 구성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김 회장은 협회가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모든

직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협회의 위상 제고와 원양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원양산업 70주년을 대비해, 2026년이 원양산업 재도약의 실질적 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구성원의 헌신과 역할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논어의 ‘조이불망 익불사속(鈞而不網 益不射宿)’이라는 구절을 인용해, 업계의 풍어와 함께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원양어업의 현실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국제 규제·선원인력난·선박 노후화 속 지속가능 발전 전략 논의



우리 협회는 지난 12월 17일 개최된 원양어업의 현실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규제 강화, 어장 변화, 선원 인력난, 어선 노후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원양어업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우리 협회 협회장 외에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국립부경대 부총장, 부산수산업정책포럼 이사장 등 업계·학계·정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조 및 주제 발표에서 한국수산업회 수산정책연구소

장, 정일산업 부사장, 우리 협회 경영지원부장 등의 발표를 통해 IUU 규제와 RFMO체제 변화, 선원 고령화와 인력난, 유가 상승과 선박 노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제도 유연화, 선원 복지 개선, 선박 현대화 금융·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종합토론에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좌장으로 현대해양 발행인, 국립수산물과학원 과장, 부경대학교 교수,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위원장, 동원산업 부산지사장, 해양수산부 원양산업 과장 등이 참여하여 원양어업을 국가 식량안보와 해양주권의 전략 산업으로 재정립하고, 과학 기반 자원 관리와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25 올해의 수산인상 시상식 개최

수산 발전 공로자 4명 본상 및 특별상 수여



우리 협회가 후원하고 장소를 협조한 ‘2025 올해의 수산인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30일 수상자와 수산단체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본상은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과 표재옥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장이 수상했으며, 올해 신설된 특별상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과 강용석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받았다.

축사에 나선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상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수상자들의 지속적인 역할

과 참여를 당부했다. 정영훈 한국수산회장도 “이상이 수산계의 노벨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수산인들의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이홍재 조합장은 김 수출 1조 원 시대를 이끌며 생산어민 권익 보호와 조합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표재옥 회장은 어촌소멸 대응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전국 146개 어촌체험마을을 대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송옥주 의원은 어업인 권익 보호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용석 이사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해양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제1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차량계량소 이전·수출 규제 대응 등 주요 현안 사항 협의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3일 2026년 제1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참치연승 출어사 14개사 가운데 13개사가 참석해 차량계량소 이전 추진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차량계량소는 투명한 어획물 측정과 유통을 위해 원양참치연승업계의 재원으로 설립된 시설로, 2010년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인근 수산선진화가공단지 부지로의 이전이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미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미국으로 어획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양포유류 저감 조치 동등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공유됐다. 또한

선상 외국인 선원의 인권이나 처우 개선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선박에서 생산된 어획물은 EU 등 유통 시장으로의 진입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됐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IUU 어업 예방과 함께, 해양포유류·상어·바다거북·바닷새 등 보호어종의 방류 및 부수어획 발생 시 철저한 기록 관리를 당부했다. 참치연승업계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선원 근로조건 개선 방안 이행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어업 법제 정비

- 피지 수산부는 수바 타카야와 빌딩에서 열린 올해 첫 고위간부회의를 마치고 2026년 전략적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수산부는 ▲연안어업관리법 및 시행령 최종 확정 ▲양식업 시행령 추진 ▲해양공간계획 수립 ▲기존 원양어업관리법(2012년)과 시행령(2014년) 검토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또한 새로운 로고 공개와 전국 어업 검문소 안내판 개보수를 통해 행정의 일관성과 현장 가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내각이 결정한 해삼 채취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생계 지원과 지역어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법률·규정·계약을 사전에 검토하는 전담 법률부서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피지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와 수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피지, 일본과 해양경제 활성화 협력 공식화

- 피지 수산임업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025년 8월 양국 간 교환된 외교협정을 기반으로 태평양 도서국 연안 해양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 이번 협력에서 피지는 주도적 이행기관으로서 JICA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연안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해양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지와 주변 태평양 도서국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 태평양 도서국, 영국 지원으로 공동 감시 추진

- 태평양 15개 섬나라는 영국의 지속가능 해양경제 기술지원 플랫폼 지원을 받아 태평양제도포럼 수산기구와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을 위한 감시·단속 강화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참가국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박 추적, 위성 이미지 활용, 항공 순찰, 데이터 분석 등 핵심 감시 기술과 표준 단속 절차를 교육받아, 지역 전반의 일관된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불법어업 억제와 식량안보, 어업인 생계 보호, 나아가 태평양 지역의 장기적 경제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 피지, 해양오염 차단 추진

- 피지 정부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로 8곳을 대상으로 부표 설치 시설을 1월 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하천과 강, 배수로를 중심으로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가 산호초와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피지 환경기후변화부는 트래시볼 퍼시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기술 평가와 유지보수, 향후 사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사회 청소 활동과 국가 폐기물 관리 정책과 연계해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추가적인 쓰레기 집중 지역을 새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마. 어가 동향

| 어종 | 규격 | 가격(\$/톤) | 비고 |
|-------|--------|----------|--------------|
| 날개다랑어 | 10kg 상 | 2,700 | 로인가공용(PAFCO) |

바. 유가 동향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Total | MGO | 1,045 | '26.1.9 |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인니, 어민 역량 강화 지원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테갈 수산교육·지도센터(BPPP)에서 동티모르 연안어업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인도네시아·일본·동티모르 3국 협력에 기반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추진하는 '동티모르 지속가능 연안어업 촉진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 프로그램은 교육시설 지원, 강사진 역량 강화, 현장 중심 기술 전수를 결합한 구조로 설계됐다. 교육 내용은 어획물 유통·품질관리, 어구 제작·운용, 선박 안전 및 엔진 유지보수, 어획물 처리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수산물 경매장(TPI), 어항, 기자재 업체 견학도 포함됐다.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 인적자원 확장·개발청의 이노만 라디아르타 청장은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어민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동티모르 대표단과 JICA 역시 이번 교육이 장기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 18명의 참가자는 사전·사후 평가를 거쳐 수료증을 받게 되며, 이는 향후 동티모르의 해상 안전 및 어업 기술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 인니, 재난 지역 어업 정상화 조치

- 2025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인도네시아 아체(Aceh),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주거지와 도로, 항만 등 핵심 인프라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해안 어부와 선박 종사자들의 조업이 중단되고 행정 처리도 지연되면서, 생계 회복에 큰 어려움이 발생했다. 지역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업 활동의 조속한 재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재난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어업허가(SIPI)와 어획물 운반선 허가(SIKPI)의 연장 및 신규 신청을 우선 처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 어업 장비 지원을 병행하고, 온라인 허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어업인의 신속한 생계 복귀와 지역 수산경제 회복을 지원한다.

다. 유가 동향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Pertamina | MDF | 1,000 | '26.1.7 |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뉴지 수산업 지속가능성 재확인

- 뉴질랜드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신 과학 보고서를 인용해 뉴질랜드의 어류 자원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수산청의 Status of the Stocks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평가된 149개 어종 중 87.2%가 지속가능한 상태로 분류됐으며, 관리가 필요한 19개 어종에 대해서도 이미 회복 계획이 수립돼 있다.



- 장관은 2009년 해당 보고가 시작된 이후 지속가능 어종 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최근 3년간 87% 이상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평가는 올해 초 유엔이 뉴질랜드 수산업을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수준 중 하나로 평가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 뉴질랜드 수산업은 약 9,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연간 약 1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쿼터 관리 제도(QMS)가 자원 관리와 산업 성과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향후 과학 기반의 수산 개혁 패키지를 추진해 관리 속도와 효과성을 높이고, 장기간 축적된 자원 관리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나. 뉴지, 미세조류에서 차세대 진통제 연구

- 뉴질랜드 연구진은 바다에서 발견되는 독성 미세조류가 생성하는 신경독 성분을 활용해 차세대 진통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미세조류가 만드는 독성 화합물은 인체에 위험할 수 있으나, 신경계에 작용하는 방식이 매우 정밀해 기존 진통제와는 다른 의학적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 연구는 해양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세조류를 자연에서 채취하지 않고, 통제된 환경에서 배양해 필요한 성분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핵심은 독성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 구조를 변형·가공해 통증 신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 이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중독성과 심각한 부작용 문제가 지적돼 온 기존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중독 위험이 낮은 신개념 진통제를 개발하는 데 있다. 아직 임상 단계의 구체적 성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공할 경우 만성 통증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고 전 세계적 과제인 오피오이드 위기 완화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는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다. 어가 동향

| 어종 | 규격 | 가격(\$/톤) |
|------|----|----------|
| 바라쿠다 | 2L | 1,950 |
| | L | 1,900 |
| | M | 1,750 |
| | S | 1,600 |

라. 유가 동향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더니든 | MGO | 840 | '26.1.6 |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유엔, 해양 위협 공동 대응 촉구

-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12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서부 인도양 지역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과 해적 행위, 불법 밀거래, 해상 이주, 유류 유출 및 화학 오염 등 복합적인 해양 위협으로 인해 연간 약 11억 4천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전체 해양 생산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 보고서는 손실 요인별로 IUU 어업 2억 4,630만 달러, 해적 행위 1억 6,400만 달러, 불법 밀거래 3억 3천만 달러, 해상 이주 관련 비용 3억 달러, 유류 유출 및 화학 오염 1억 달러로 분석했다. 특히 2020년 모리셔스 해안에서 약 1,000톤의 연료가 유출된 MV Wakashio 사례를 언급하며, 해양 사고가 장기적인 생태 복원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위원회는 이러한 위협이 총 3,338억 달러 규모의 지역 해양 자산과 연간 최소 200억 달러의 해양 경제 수익, 나아가 수백만 명의 생계와 식량 안보에 중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 대응 방안으로는 ▲해양 안보를 블루 이코노미 정책에 통합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 체계 구축 ▲데이터 공유를 통한 감시 역량 강화 ▲지역 해양 정보 융합 센터와 조정 작전 센터 기능 강화 ▲공동 해상 순찰 확대 ▲불법 어업 대응 법률 강화 및 지역 공동 전담 조직 창설 등을 권고했다.

나. 모리셔스, 이란과 해양안보 협력 강화

- 이란과 모리셔스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인도양이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송의 핵심 항로이자 전략적 해양 지역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양국은 해적 행위와 불법 밀거래 방지, 주요 항로 감시, 에너지 수송 안전 확보를 위해 조율된 해양안보 체계 구축과 공동 순찰,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관광·해양 인프라·지속 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이번 협력은 모리셔스를 인도양의 전략적 허브로 강화하는 동시에, 이란의 지역 내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양국은 앞으로 공동 해양 안보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인도양 연안국 협의체 체계 내 협력을 강화해 공동 감시·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안정과 장기적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 유가 동향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Engen | MGO | 970 | '26.1.8 |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관

가. 일렉스 오징어 조업 개시

- 2026년 일렉스 오징어 어기는 49°S 이남 해역에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됐으나, 강한 폭풍우로 인해 주요 항구에서의 선단 출항과 작전 배치가 지연되며 초반 흐름이 다소 불안정하게 전개되고 있다. 채낀기 선단은 산 홀리안 동쪽 인근에서 소규모 어군과 접촉했으며, 탐색 범위를 남위 49°~49°40'까지 확대했지만, 자원 분포와 개체 크기가 분산돼 단기적인 어황 판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외국 선박들 역시 유사한 관측을 보고하고 있으며, 현재 어장 인근에서 운항·이동 중인 채낀기 선박은 약 62척으로 파악된다.
- 물류 측면에서는 푸에르토 데세아도 기항 이후 냉장 설비 이상이 의심돼 마르텔플라타로 복귀하는 선박이 발생하는 등 변수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마르텔플라타는 다시 핵심 물류 허브로 기능하고, 푸에르토 데세아도는 특정 함대 중심의 배치 거점 역할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2026년 어기 초반 성과가 단순한 어획량보다 자원 상태, 규제 준수, 항만 물류 체계, 재정·상업적 대응 능력이 복합적으로 어기의 안정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유가 동향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Epsol YPF | MGO | 1,230 | '26.1.6 |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가나, 수산 개혁 현황 점검

- 가나 부통령은 수산·양식개발부를 방문해 국가 리셋 아젠다에 따른 수산 부문 개혁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점검했다. 핵심 성과로는 연안배타구역(IEZ)을 기존 6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해 소규모 어민을 산업 트롤어선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한 조치를 제시했다.
- 가나 정부는 2025년 제정된 수산·양식법(Act 1146)과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케이프 쓰리 포인트 해역에 최초의 해양보호구역(MPA)을 지정했다. 또한 어항관리위원회 재구성(IEZ)과 단속 강화로 연안 어업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프리믹스 연료 유통의 자동화와 경쟁체제 도입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했으며, 아노마보 수산대학 건립 등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과학적 역량을 갖춘 차세대 어업인 양성에도 나섰다. 가나 정부는 2026년을 '어업 재도약의 해'로 규정하고, 식량주권 확보와 해양자원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나. 가나, 자원 보호와 단속 역량 강화

- 가나 국회는 2026년도 수산·양식개발부(MoFAD) 예산으로 총 GH¢4억 2,800만 세디를 승인했다. 이번 예산은 해양 및 내수면 자원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건강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한다. 국회 식량·농업·코코아위원회 보고를 맡은 고드프레드 세이두 자사우 위원장은 과학 기반 자원관리 강화, 어자원·환경 평가 확대, 해양보호구역(MPA) 지정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이번 예산은 국가 중기발전정책 프레임워크(NMTDPF)의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 발전 및 관리' 목표와 연계돼, 어자원 회복력 강화, 불법·비

보고·비규제(IUU) 어업 단속, 수산업 현대화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GH¢2억 8,790만 세디 규모의 자본지출(CAPEX)을 통해 연구조사선과 어업단속선, 차량, 감시장비 도입 등 단속·감시 역량과 물류·현대화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 아울러 2025년 성과로는 치어 1억 7,300만 마리 생산, 산업어선 76척 등록, 수산단속요원 40명 양성 등이 보고됐다. 국회는 이번 예산 승인을 통해 자원 보호와 집행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가나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 어가 동향

| 어종 | 규격 | 가격(\$/톤) |
|------|-----------|----------|
| 황다랑어 | 10kg 초과 | 1,850 |
| | 10kg 이하 | 1,530 |
| 가다랑어 | 3.4kg 초과 | 1,400 |
| | 1.8~3.4kg | 1,350 |
| | 1.5~1.8kg | 1,200 |
| | 1.5kg 미만 | 1,050 |

라. 유가 동향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Goil | MGO | 680 | '25.12.31 |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청장 간 면담 실시

- 지난 12월 19일 파푸아뉴기니 수산청 청장과의 저녁 미팅을 통해 2026년 이후 수산청 운영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수산청장은 2025년까지 양자 협



약(선망선) 확대와 국내에서 조업하는 외국 국적 선박의 증선을 통해, PNG 내 가공 공장 운영에 충분한 원료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VD(Vessel Day) 판매를 완료함으로써 재정 기여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 또한 금년도 양자 협상과 LBFV(Local Based Foreign Vessel)에 대한 조업일수 배분 과정에서 VALATOP 등 진화된 제도를 적용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을 강조했다. 수산청장은 2026년부터는 단순한 VD 판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내 수산업 진흥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PNG 해양 순찰 강화

- 지난 12월 말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은 일본으로부터 해양순찰선 3척을 매입하고, 수도 포트모스비에 관련 행사를 개최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PNG 최서단 지역인 웨스턴주 다루(Daru) 섬에서 해양 모니터링 센터 개소식이 열렸으며, 이 행사에는 PNG 수산청장을 비롯해 호주 수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이번 순찰선 도입과 모니터링 센터 구축은 과거 PNG 수산청과 한국 해양수산업 간에도 논의된 바 있는 사안이다. 다만 수산청장에 따르면, 이번 순찰선은 일본의 무상원조가 아닌 PNG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매입한 것으로, 자국 주도의 해양안보 강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 PNG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한 웨스턴주와 웨스트 세픽주 해역에서 빈번히 발생해 온 인도네시아 선박의 불법 조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국경 해역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자국 해양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추호철 세네갈 명예해양수산업



추호철
명예해양수산업

가. 세네갈, 해양 인프라 확충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와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은 카사망스 지역의 해양·수로 개발을 위한 통합 프로젝트 계획에 공식 서명하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
- 이번 계획은 카사망스 강 항로 준설을 통한 항만 접근성 개선, 현대식 여항 건설, 해양 분야 직업 교육센터 설립 등 해상·수로 인프라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네갈은 이를 Vision Senegal 2050과 2025~2029 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물류·교통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 네덜란드는 항만·해양 분야의 기술과 지속가능성 경험을 제공하며, 사전 타당성 조사 비용을 약속했다. 양국은 이번 협력이 지역 경제 통합과 운송 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세네갈, 해양 생물 다양성 회복 추진

- 세네갈 북부 생루에 해안에 해양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규모 인공 암초가 설치됐다. 이번 사업은 해양 생태계 재생과 지역 어업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 프로젝트는 지역 당국과 연구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됐으며, 인공 암초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교육·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이번 사업이 어족 자원 회복과 장기적인 지역 경제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 어가 동향

| 어종 | 규격 | 가격(\$/톤) |
|------|-----------|----------|
| 황다랑어 | 10kg 초과 | 1,550 |
| | 3.4~10kg | 1,450 |
| | 1.8~3.4kg | 1,350 |
| | 1.5~1.8kg | 1,200 |
| | 1.5kg 미만 | 1,000 |
| 눈다랑어 | 10kg 초과 | 1,200 |
| | 3.4~10kg | 1,200 |
| | 1.8~3.4kg | 1,200 |
| | 1.5~1.8kg | 1,050 |
| | 1.5kg 미만 | 850 |
| 가다랑어 | 3.4kg 초과 | 1,400 |
| | 1.8~3.4kg | 1,350 |
| | 1.5~1.8kg | 1,200 |
| | 1.5kg 미만 | 1,000 |

집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수산물(NMFS)에 따르면, 비준수 어업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은 반드시 정부 발급 승인서(COA, Certificate of Admissibility)를 동반해야 하며, 유효한 COA가 없는 선적은 미국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국과 원양어업 국가는 2026년 시행 이전까지 제도 정비와 대응 전략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 어가 동향

| 어종 | 규격 | 가격(\$/톤) |
|------|-----|----------|
| 눈다랑어 | 라운드 | 1,500 |
| 가다랑어 | 라운드 | 1,300 |

라. 유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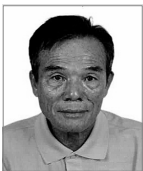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다카르항 | MGO | 610 | '26.1.6 |

다. 유가 동향

| 공급 | 유종 | 가격(\$/kl) | 조사일 |
|-------|----|-----------|-----------|
| 클리퍼오일 | 디젤 | 850 | '25.12.29 |

허성림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게재 >



허성림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美, MMPA 수입 규제 본격화

-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산물에 대해 수입금지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외국 어업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해산물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참치로 예상되며, 향후 마히마히 등 다른 어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당국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조치, 관리·감독 체계, 법적



동태찌개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동태 1마리, 알 1컵, 고니 1컵, 두부 1/3모, 대파 1대, 애호박 1/4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무 1/3개, 썩갓 1개, 멸치육수 500ml
- 양념: 다진마늘 2큰술, 간생강 1/3큰술, 새우젓 1.5큰술, 국간장 5큰술, 고춧가루 3큰술,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무는 나박하게 썰고, 애호박과 두부는 편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 ② 양념장 재료를 섞어 만든다.
- ③ 냄비에 무를 깔고 동태를 넣은 후 멸치육수를 넣어 끓인다.
- ④ ③의 육수가 끓으면 양념장을 넣고 알과 고니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 ⑤ 썰어 놓은 채소와 두부를 넣고 끓인 후 썩갓을 올려 완성한다.

1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415달러

1월 13일 기준 430달러

1월 13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1.40달러, WTI 가격은 61.15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5.47달러를 기록하였다.

동일 날짜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430.00달러로 전월 동기 평균 가격인 640.75달러 대비 32.9%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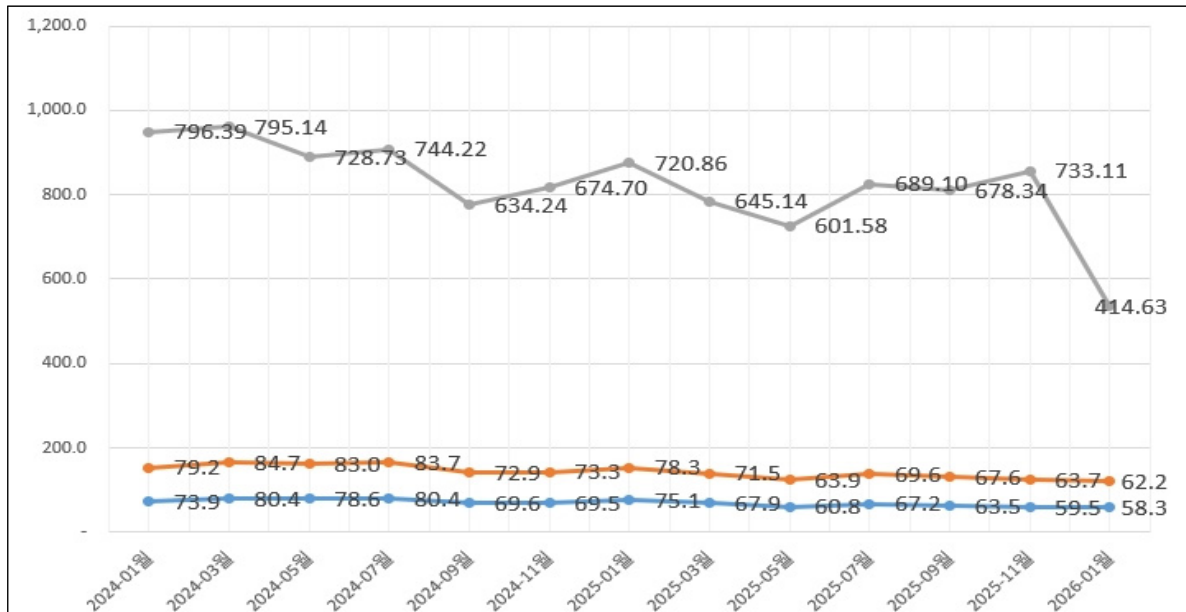
1월 평균(1.1~12.13) 가격은 414.63달러로 전월 전체 평균 가격인 638.33달러 대비 35.0% 하락하였다. 이는 지난해 1월 전체 평균인 721.66달러보다 42.5% 하락하였고, 지지난해 1월 전체 평균인

796.39달러보다는 47.9% 하락하였다.

한편, 최근 한 달간(12.12~1.12) 브렌트유 가격은 61.0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75.05달러 대비 18.6% 하락하였고, 지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77.68달러 대비 21.4% 하락하였다.

올해 1~2월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석유 수요 회복이 더디고, 계절적 비수기 영향, 공급 잉여 발생 전망에 따라 유가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 유가는 대체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 연도별 월별 유가 평균 가격(위에서 아래로 싱가포르 MGO, Brent, WTI 순) 〉



범블비·코스트코, 美 정부 상대 관세 환급 소송

현재까지 美 정부에 납부한 관세 환급 요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비상사태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둘러싸고, 미국 내 수입·유통 기업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참치 가공기업 범블비는 지난 11월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사태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수입 관세가 위법하다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어 11월 28일에는 세계적인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의 전면 환급을 요구하며 동일하게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참치 및 기타 수산물 수입업체인 넷투노 USA 역시 상호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범블비와 코스트코는 피고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로드니 S. 스콧 CBP 청장, 그리고 미국 정부를 지목하였다. 이들 기업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아니며, 의회 또한 그러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첫 청문회에서 다수의 대법관은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블비는 소장을 통해,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를 납부해 왔으며 현재도 관세를 계속 납부 중이라고 밝혔다. 피지산 날개 다랑어 로인은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범블비 공장

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부터 피지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32% 관세율보다 하락한 수치다. 다만 범블비는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의 정확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코스트코는 11월 28일자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 측에 납부한 관세의 전면 환급을 요구한다”라고 밝히며, 관세로 인해 회사가 부담한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CBP에 따르면, 미국 수입업체들은 IEEPA를 근거로 올해 9월 말까지 약 9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블비와 코스트코는 대법원이 IEEPA 관세와 이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개별 수입업체가 별도의 사법적 구제를 받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수입업체들은 관세 환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 기업은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신고 건들이 빠르면 2025년 12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되기에, 그 이전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 확정이란 CBP가 수입 신고 건에 대해 관세를 최종 산정하는 절차로, 확정 이후에는 수입업체가 18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2일자

美 의회, 中 IUU 선박 겨냥 불법어업금지법 통과

美 정부에 IUU 제재 권한 부여

지난 12월 초 열린 제119회 미국 의회 회기기간에서 하원 외교위원회(U.S.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는 중국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선단을 표적으로 하는 ‘불법어업금지법(Stop Illegal Fishing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향후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Donald Trump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어업 활동에 연루된 개인 또는 선박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IUU 어업으로 생산된 참치 및 기타 수산물의 국제 무역을 차단하는 데 있으며, 법안 문구에는 중국이 “IUU 어업의 주범이자 최대의 해외 수산자원 착취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불법어업금지법은 Young Kim 하원의원과 Gregory Meeks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위원회 표결 결과 찬성 47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다. 법안은 IUU 어업 혐의가 있는 선박은 물론, 해당 선박의 소유자인 외국인, 그리고 선장·해기사 등으로 해당 선박에 승선한 인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루어지는 IUU 어업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유한한 수산자원을 착취해 연안국의 경제적 접근권을 부당

하게 박탈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표현은 그간 여러 국가 정부와 비정부기구(NGO)로부터 IUU 어업 혐의를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온 중국을 명확히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제재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참치에만 적용될지, 또는 다른 수산물과 제3국 시장까지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법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법안은 IUU 어업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안전 관리 부재, 불법적인 저임금 지급, 비인도적 대우는 물론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한 인물 중 하나인 Chris Smith 하원의원은 2023년 ‘미끼에서 식탁까지(From Bait to Plate)-중국 내 강제 노동이 미국 수산물 공급망을 어떻게 오염시키는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주재한 바 있다.

아울러 2024년에는 미국 상원의원 2명이 IUU 어업 퇴치와 멸종위기종의 판매·공급·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2024 글로벌 어업법(Global Fisheries Act of 2024)’이라는 초당적 법안을 추진했다. 해당 법안 역시 중국 국적 선박과 기타 ‘악의적 행위자(bad actors)’가 불법 어획한 참치 및 수산물의 미국 시장 유입 차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8일자

WCPFC,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MP 채택

해상전재 통제 강화 채택 등 불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이번 연례회의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으나, 해상 전재와 선박 통제 강화 등 주요 규정 준수 안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채택하지는 못했다.

위원회는 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5일,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관리 절차(Management Procedure, MP)를 공식 채택했다. 해당 결정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Pew Charitable Trusts(퓨 자선신탁)는 약 10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어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MP가 자원의 상태에 따라 어획 한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장기적 접근 방식으로 어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퓨 측은 이번 결정으로 해당 어업의 MSC 인증 유지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아만다 스톤-필롯 MSC 표준 최고책임자도 MP 채택을 환영하며, 이러한 흐름이 향후 모든 참치 자원의 관리 강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참치 자원에 대한 어획 전략이 채택됨에 따라, 위원회의 논의 초점이 향후 투명성, 규정 준수, 책임성 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해상 전재와 참치 연승선의 옵서버 승선율 100% 달성 문제였다. 해당 사안은 WCPFC와 회원국들이 10여 년간 논의해 온 사안으로, 일부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회의 기간 중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조합(SBMI)은 선원 보호 강화를 위해 해상 전재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현재 약 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승선 모니터링 커버리지(인간 및 전자 모니터링 포함)를 100%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국가들은 내년 WCPFC 연례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최우선 의제로 상정해 추가 논의를 거쳐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퓨 자선신탁은 “WCPFC는 수년째 전재 문제에서 교착 상태에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번에도 공해상 전재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제 개선을 미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년부터 작업반이 WCPFC 관할 수역 내 전자 모니터링 도입 요건을 검토할 예정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획 데이터와 선박 활동 추적이 강화돼 규정 준수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눈다랑어에 대한 관리 절차(MP)는 회의 막바지에 논의됐다. PNA는 눈다랑어 MP에 FAD 금어기를 포함하는 데 반대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기존 열대 다랑어 관리 체계와 일관된 접근을 주장했다. 해당 논의의 최종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아울러 WCPFC 사무국과 의장은 2026년 발효 예정인 ‘유엔 공해 조약(BBNJ 협정)’과 관련된 준비 작업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8일자

WCPFC 날개다랑어 TAC 및 국가별 배분, 내년 논의 과학기반 TAC 자동 산출 합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WCPFC 제22차 연례회의가 지난 12월 5일 폐막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중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어획 비중이 큰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해 새로운 관리 절차(MP)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총허용어획량(TAC)과 국가별 배분 방식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차기 연례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채택된 MP는 사전에 지정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TAC를 자동 산출하는 방식이다. 해당 자원의 2023년 총 어획량은 6만 8,255톤으로 집계됐으

며, 연승어업 혼획 비중이 큰 일본의 어획량은 1,378톤이었다. 향후 국가별 배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관리 및 준수 대상 자원이 된다.

회의에서는 2022년 채택된 가다랑어 MP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으며, 자원이 한계관리기준치를 상회하고 목표관리기준치 부근에 있는 것으로 평가돼 현행 관리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북부소위원회 합의 미도출로 논의 경과 보고에 그쳤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2월 8일자

4개 태평양 도서국, WCPFC서 미국과 참치 조약 체결 입어 대가로 연간 6,000만 달러 지원

WCPFC 연례회의의 기간 중, 태평양 도서국 4개국이 내년도 남태평양참치조약(SPTT)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국가는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투발루이며, 다른 태평양 도서국들도 순차적으로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국들은 조약 체결과 함께 연간 6,000만 달러가 분배되는 지역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는 2023~2033년 동안 태평양 도서국 전체에 총 6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현 트럼프 행정부도 해당 지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쿡 아일랜드 뉴스에 따르면, 다른 태평양도서국포럼 회원국들도 서류 접수 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PTT는 1987년 체결된 협정으로, 미국 국적 선망선단에 태평양 도서국 EEZ 접근권을 부여하는 대신 입어료를 통해 도서국에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이 협정은 미국의 안정적인 참치 공급과 도서국의 예측 가능한 수익 확보를 동시에 뒷받침해 왔다.

쿡 제도 해양자원부 파멜라 마루 차관은 참치 어업 수익이 자국의 경제 성장과 식량 안보, 생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SPTT를 관장하는 FFA는 니우에가 다음 서명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3일자

日 10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량 10년 내 최저 눈다랑어 물량 급감으로 단가는 상승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5년 10월 일본의 다랑어류 수입 실적은 전반적으로 물량 감소가 나타났다. 신선·냉장 다랑어 수입량은 314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6억 5,300만 엔으로 3% 줄었다. 냉동 다랑어는 1만 6,488톤으로 7% 감소했으나, 수입액은 168억 7,800만 엔으로 23% 증가했다. 가공제품은 4,070톤으로 15% 감소했고, 수입액도 32억 8,600만 엔으로 16% 줄었다.

특히 냉동 눈다랑어 원어(GG, 아가미와 내장만 제거한 상태)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다. 10월 대만산 반입량은 978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하며,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1,000톤을 밑돌았다. 중국산은 360톤으로 63% 줄었고, 한국산도 152톤으로 25% 감소하는 등 주요 공급국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10월 냉동 눈다랑어 총 수입량은 1,655톤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자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수입량이 2,000톤을 밑돈 것은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수치는 운반선 입항 시점이나 11월 이후 지중해산 냉동 참다랑어 필렛 반입을 대비한 냉동창고 공간 확보 문제 등 물류·재고 요인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일 월 수치만으로 시장 흐름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원양 어업국의 실제 조업 선박 수 감소 영향이 통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도양에서는 연안 신흥국의 어업 비중 확대가 이어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엔화 약세와 조업 비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배분된 어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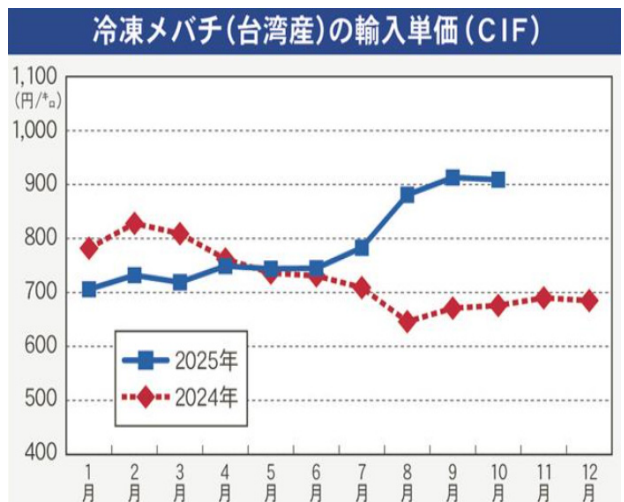
쿼터만으로는 눈다랑어와 황다랑어 중심의 인도양 조업 경영을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가격 측면에서는 10월 냉동 눈다랑어 kg당 평균 단가가 92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고, 전월인 9월(902엔)보다도 올랐다. 다만 대만산 평균 단가는 909엔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했으나, 전월 913엔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양식 참다랑어 냉동 필렛의 경우, 이번 시즌(전년 11월~올해 10월) 수입량은 2만 6,269톤으로 전년도 동기(2만 6,262톤)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반면 kg당 평균 단가는 2,506엔으로 전 시즌 대비 17% 상승했다.

신선 제품 가운데서는 호주산 자연산 남방참다랑어 수입량이 35톤으로 전년 동월 실적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어획 절정기가 지나면서 평균 단가는 1,418엔으로 5% 하락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2월 4일자



태국 참치 통조림 미주 수출 5년 내 최고 평균 가격은 미국이 최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태국산 제품 관세 조치로 혼란이 있었음에도, 태국의 올해 1~3분기 아메리카 대륙 대상 참치 통조림 수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태국의 참치 통조림 총 수출량은 40만 2,078톤이며, 이 중 32%인 13만 686톤이 미주 지역으로 수출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3,000톤 증가했다. 미주 지역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4,630달러였다.

미주 수출량은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사재기 수요가 집중됐던 2020년 1~3분기(17만 2,326톤)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주의 최대 시장인 미국의 수입량은 7만 4,300톤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4,842달

리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수입 품목은 범블비의 '청크 라이트 인 워터(Chunk Light in Water)', 치킨오브더시(Chicken of the Sea)의 날개다랑어 통조림, 그리고 자체 브랜드(PB) 제품이 주를 이뤘다.

반면 캐나다의 수입량은 2만 347톤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고, 평균 가격도 톤당 4,807달러로 2% 하락했다. 중남미에서는 칠레·페루·아르헨티나의 수입량이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는 전년도 급감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2톤으로 11% 감소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3,575달러로 미주 수출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일자

Business With US Remained Stable

AMERICAS: Import Canned Tuna From Thailand Up To 3Q
In M/T, CFR Value per 1 M/T

| | 2023 | | 2024 | | 2025 | | Diff. % | |
|--------------------|----------------|----------------|----------------|----------------|----------------|----------------|-----------|-----------|
| | M/T | FOB | M/T | FOB | M/T | FOB | M/T | FOB |
| USA | 60,025 | \$4,728 | 74,087 | \$4,790 | 74,300 | \$4,842 | 0% | 1% |
| Canada | 14,043 | \$4,988 | 22,048 | \$4,881 | 20,347 | \$4,807 | -8% | -2% |
| Chile | 11,522 | \$3,732 | 12,226 | \$4,089 | 13,286 | \$3,903 | 9% | -5% |
| Peru | 4,205 | \$4,549 | 8,655 | \$4,638 | 10,081 | \$4,670 | 16% | 1% |
| Argentina | 2,390 | \$3,603 | 730 | \$3,685 | 2,337 | \$3,850 | 220% | 4% |
| Dominican Republic | 1,939 | \$3,667 | 2,260 | \$3,793 | 2,002 | \$3,575 | -11% | -6% |
| Others | 6,412 | \$3,828 | 7,659 | \$3,919 | 8,332 | \$3,897 | 9% | -1% |
| Grand Total | 100,535 | \$4,538 | 127,665 | \$4,652 | 130,686 | \$4,630 | 2% | 0% |

태국산 통조림 아프리카 수출량 16% 증가

평균 수출가격은 4% 하락

최근 몇 년간 태국산 참치 통조림은 아프리카 시장에서 다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3분기 태국의 참치 통조림 총수출량은 40만 2,078톤이며, 이 중 아프리카향 수출은 8만 1,20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수출가격은 톤당 3,533달러로 4% 하락해, 물량 증가와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다. 이는 2022년 고점 이후 위축됐던 아프리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로 보면 리비아와 이집트가 주요 수입국 지위를 유지했다. 리비아는 1~3분기 수입량이 3만 8,745톤(전년 대비 +2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3,978달러로 아프리카 평균을 웃돌았다. 이집트 역시 3만 3,981톤(+32%)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평균 가격은 톤당 2,917

달러로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수입량이 4,142톤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가격은 톤당 3,760달러를 기록했다. 소말리아와 가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시장이나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소말리아는 1,996톤(+9%)으로 증가했음에도 평균 가격이 톤당 4,614달러로 가장 높았고, 가나는 999톤(+104%)으로 수입량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며 신규 성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요약하면, 아프리카 시장은 태국산 참치 통조림의 물량 확대를 중심으로 회복 국면에 진입했으며, 국가별로는 △리비아·이집트의 대량 수요 유지 △가나의 고성장 △소말리아의 고가 시장이라는 차별화된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3일자

Most African Buyers Increased Intake

AFRICAN: Import Of Canned Tuna From Thailand

Divided Into Major Destinations In M/T, CFR Per 1 M/T, 3Q

| | 2023 | | 2024 | | 2025 | | Diff. % | |
|--------------------|---------------|----------------|---------------|----------------|---------------|----------------|------------|------------|
| | M/T | FOB | M/T | FOB | M/T | FOB | M/T | FOB |
| Libya | 25,504 | \$4,170 | 32,034 | \$4,087 | 38,745 | \$3,978 | 21% | -3% |
| Egypt | 11,224 | \$3,149 | 25,807 | \$3,081 | 33,981 | \$2,917 | 32% | -5% |
| South Africa | 4,421 | \$3,905 | 8,317 | \$3,655 | 4,142 | \$3,760 | -50% | 3% |
| Somalia | 2,173 | \$5,108 | 1,825 | \$5,464 | 1,996 | \$4,614 | 9% | -16% |
| Ghana | 455 | \$3,271 | 489 | \$3,800 | 999 | \$3,836 | 104% | 1% |
| Angola | 617 | \$3,932 | 592 | \$3,988 | 552 | \$3,875 | -7% | -3% |
| Others | 1,038 | \$3,682 | 671 | \$3,686 | 794 | \$3,685 | 18% | 0% |
| Grand Total | 45,434 | \$3,913 | 69,733 | \$3,692 | 81,209 | \$3,533 | 16% | -4% |

스페인 참치어업, 젊은 세대의 직업 인식은 긍정적 교육 및 양성 체계 제약으로 선원 부족은 지속 전망

스페인 참치 어선에서 근무하는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가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이며 수산업 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직업적 보람을 이유로 또 다른 젊은 세대에게도 참치 어업 종사를 권장하고 있다.

스페인의 참치·수산물 어업 종사자는 약 3만 1,000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스페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참치 선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선원 특별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는 6만 1,900명으로, 선원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도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향후 스페인과

EU 전역에서 젊은 선원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직업 만족도는 높지만, 교육·훈련 체계가 실제 승선과 경력 형성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참치 어선은 근무 여건 개선으로 청년층과 여성의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소형 연안어선은 여전히 인력 유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 확대와 진입 경로 개선이 향후 인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4일자

WCPFC 관리 절차 합의의 의미

도서국 경제 및 식량 안보 고려한 보수적 관리 본격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관할 수역 내 날개다랑어 어획량을 기존 대비 10~12% 감축한 약 5만 6,000톤 수준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관리 절차(MP)에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어가를 방어하는 동시에,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던 아메리칸사모아 거점의 영세 조업선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절차는 지난 12월 초 열린 제22차 WCPFC 연례회의에서 합의됐으며, 이에 따라 날개다랑어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지도 유지됐다. 이를 통해 아메리칸사모아 연승

어업은 현지 스타키스트(StarKist) 통조림 공장에 날개다랑어를 프리미엄 가격으로 지속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태평양수산관리위원회(WPFMC)의 키티 시몬즈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날개다랑어 어업과 이에 의존하는 도서국 경제 및 식량 안보를 안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메리칸사모아, 괌, 북마리아나 제도 대표단도 소규모 도서국 선단 간 형평성을 강조하며 보수적 관리 접근을 지지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0일자

투나콘스, BBNJ 대응 국제공해어업연합 창설 지지 과학적 근거와 식량안보 균형 필요

동부태평양 수역의 참치업체 그룹이자 해양관리협회 인증을 획득한 참치보존그룹(투나콘스; Tunacons)은 공해상 어업 관리를 위한 조정 메커니즘 구축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투나콘스는 지난주 메리다(멕시코)에서 열린 ‘제5회 라틴아메리카 수산·양식 지속가능성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16개국에서 500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해 해양 거버넌스의 향후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투나콘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가장 의미 있는 제안 가운데 하나는 ‘국제공해어업연합(International High Seas Fisheries Alliance)’ 창설 방안이었다. 해당 제안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산업형 어업과 영세 어업 단체, 과학자, 책임 있는 수산물 기업 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취지로 제시됐다.

BBNJ 협정은 2023년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 채택된 국제 협정으로, 공해와 심해저를 포함해 어느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전 세계 바다의 약 2/3를 대상으로 해양 생물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나콘스는 해당 연합이 국제 수역에 적용될 새로운 규칙이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지역수산기구(RFMO)와 조화를 이루며, 글로벌 식량 안보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예르모 모란 투나콘스 전무는 어업 부문이 BBNJ 협정 이행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콰도르의 산업형 어업과 영세 어업을 대표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라틴아메리카,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의 유사 어업 단체들과 함께 해당 연합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란 전무는 이 연합이 “BBNJ 협정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입장을 정부에 제안하려는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경계왕래성 또는 고도회유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다랑어류, 새치, 고등어, 홈볼트오징어, 만새기 등의 조업이 해양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0일자



美 국방 법안에 참치 조약 내용 포함

美 선망선단 유지와 참치 공급의 의미 강조

미국 하원은 지난 12월 10일 총 9,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정책 법안을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에는 미국 국적 선망선이 태평양 도서국 수역에서 참치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025 남태평양참치조약(SPTT)' 관련 미국 법 개정 조치가 포함돼 주목된다.

해당 조약은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미국 상업 어선에 적용되는 연방 요건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2016년 미국과 태평양 도서국들이 합의했으나 그동안 이행되지 못했던 조약 변경 내용을 미국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변경 사항

에는 조업 일수 설정과 추가 조업권 직접 구매 허용 등 미국 선박 접근 방식의 현대화가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며, 상원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향후 조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과 행정부의 추진 방향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아메리칸사모아 지역구의 아마타 하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그는 해당 조치가 아메리칸사모아 경제와 미국 참치 산업, 선망선단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1일자

PNG 참치산업, 임대국에서 운영 주체로

통조림 및 어업 복합 구조 지향으로 경제 자립성 강화

파푸아뉴기니(PNG) 정부는 필리핀계 참치 기업 RD 코퍼레이션과 마당 통합 경제특구(Madang Integrated SEZ) 내 참치 가공 공장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자국 참치 산업 확장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수출 지향적 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한 핵심 투자 프로젝트다.

PNG 국제무역투자부의 리처드 마루 장관은 12월 9일 시드니에서 RD 측과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해당 공장은 PNG 정부와 RD 코퍼레이션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양측은 각각 8,000만 키나를

투자하고, RD 코퍼레이션이 10년간 경영 관리를 맡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RD는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해 PNG가 단순 임대료 수취국을 넘어 통조림 공장 소유주이자 장기적으로는 어업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마당 지역에서 5,000개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PNG의 20년 국가 개혁 전략에 따라 원자재 수출 중심 구조에서 탈피해 경제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0일자

인도, 프리미엄 참치 거점 육성

생산량 확대와 지속가능 어업 구축

인도 정부는 서남부 해상에 있는 연방 직할지 Lakshadweep(락샤드위프)를 프리미엄 참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인도 수산부는 지난 12월 13일 락샤드위프에서 첫 투자자 회의를 열고 섬 지역 수산업 중심 개발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인도 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섬 내 수산업 주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와 투자자들은 약 5,000만 루피 규모의 초기 투자를 검토 중이다.

현재 락샤드위프 어선의 연간 참치 양륙량은 약 1만 5,000톤 수준이나, 정부는 집중적인 투자와 제

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생산량을 최대 10만 톤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어항, 콜드체인 물류, 수출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식 가공 시설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선상 저장·가공 설비를 갖춘 다목적 어선과 원양 어선을 중심으로 선단 현대화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지 영세 어업자들은 대남시 방식으로 가다랑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해당 어업에 대한 국제 인증 취득도 모색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6일자

베트남 참치 정책, 규제에서 조정 국면으로

어획 감소 및 통상 악재로 정책 전환

베트남 정부는 어업계와 참치 수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가다랑어를 포함한 주요 참치류에 대한 크기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2024년 항만에서 체장 50cm 미만 가다랑어에 대해 자원 인증서 발급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베트남 국적 선박의 주 어획·수출 품목인 가다랑어를 비롯해 황다랑어, 눈다랑어와 함께 물치다래, 점다랑어, 몽치다래 등 다랑어 유사종에도 적용되며, 11월 29일부터 시행

됐다. 업계는 최소 체장 50cm 규정이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 선단의 총 어획량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14만 2,113톤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참치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정부가 규제 유예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0일자

태국 참치 통조림 EU 수출 증가

EU 회원국 23% 증가, EU 미가입국은 전년 수준

올해 1~3분기 태국의 EU행 참치 통조림 수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 미가입 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량은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평균 수출 가격 또한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었다.

2024년 이후 태국의 유럽행 참치 통조림 수출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태국산 참치 통조림의 EU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흐름은 기존 추세가 전환된 것으로 평가된다. 태국은 현재 EU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정이 타결될 경우 태국 가공업체들은 무관세 혜택을 바탕으로 EU 시장 내 수출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1~3분기 태국의 EU 회원국 대상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평균 수출 가격은 톤당 5,127달러로 소폭 하락했다.

국가별로 보면, 핀란드와 독일의 수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핀란드의 수입량은 1,76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4톤 증가했으며, 독일은 1,024톤으로 220톤 증가했다. 특히 독일의 무역상과 소매업체들은 프리미엄급 및 MSC 인증 참치 제품 수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시장에서는 소스가 포함된 참치 통조림 제품에 대한 선호가 확인됐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평균 수입 가격은 다소 하락했으나, 수입 물량은 증가했다. 이들 국가의 평균 수입 가격 수준을 감안할 때, 수입 물량 중 상당 부분이 프리미엄 참치 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

된다. 프랑스 시장에서도 회복세가 확인됐으며, 올해 1~3분기 수입량은 717톤으로 2023년 연간 수입량을 웃돌았다.

EU 미가입 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다수 국가에서 태국산 참치 통조림 수입이 증가했다. 스위스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6,099톤이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5,283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위스는 태국산 MSC 인증 참치 통조림을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5,355톤이었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717달러로 전년 대비 6% 하락했으나, EU 미가입 유럽 국가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영국의 주요 참치 브랜드인 존 웨스트는 타이 유니온 산하 브랜드로, 일부 제품은 태국 사뭇사콘 통조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참치 통조림 수입을 확대했다. 올해 1~3분기 우크라이나의 태국산 통조림 수입량은 3,71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0톤 증가했으며,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3,404달러로 EU 미가입 유럽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다.

반면 세르비아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977톤으로 집계됐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3,699달러였다. 노르웨이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4톤 증가한 1,341톤을 기록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2일자



EU 참치 통조림 수입량 26% 증가

평균 수입가 전년 대비 7% 하락

EU의 참치 통조림 수입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3분기 EU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45만 9,91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3억 9,000만 유로에 달했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195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 하락했다. 분기별로 보면, 상반기 수입량은 이미 30만 7,04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3분기 수입량은 15만 2,867톤이었다.

비(非) EU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전체 확대를 주도했다. EU 외부 공급국으로부터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28만 8,629톤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평균 가격은 톤당 4,639유로로 5%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에콰도르산 수입이 두드러졌다. 에콰도르산 수입량은 12만 5,374톤으로 비 EU산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만 8,000톤 증가했다. 평균 가격은 톤당 4,511유로로 주요 공급국 가운데 낮은 수준이었다. 동부태평양의 올해 가다랑어 생산량은 2024년 대비 감소했으나, 동부태평양 가공업체의 통조림 생산 물량은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셸산 수입량은 2만 1,723톤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평균 가격은 톤당 5,987유로로 전체 공급국 가운데서도 높은 편이었으며, EU 시장에서 소비되는 여러 브랜드 제품과 함께 고가의 날개다랑어 제품도 포함돼 있다.

파푸아뉴기니(PNG)와 필리핀산 수입 역시 큰 폭

으로 늘었다. PNG산은 전년 동기 대비 9,929톤, 필리핀산은 6,785톤 증가했다. 지난달 PNG 어업협회는 ‘책임 있는 소싱 정책’이 지난 5년간 PNG 참치 부문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나산 수입량은 1만 1,563톤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반면, 스코디(Scodi) 공장이 위치한 코트디부아르는 1~3분기 동안 EU행 물량이 감소한 유일한 공급국으로 집계됐다.

태국산 참치 통조림에는 2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3분기 EU의 태국산 수입량은 9,26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153유로였다. 현재 진행 중인 EU-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두고 태국 가공업체는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는 반면, EU 업계는 참치 제품의 무관세 적용 제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EU 역내 국가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했다. 역내 수입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스페인산 수입량은 7만 5,249톤으로 6% 증가했다. 가다랑어·황다랑어·날개다랑어 제품이 혼합된 스페인산은 평균 톤당 6,512유로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다.

수입 허브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의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약 1만 1,700톤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EU 내 다른 국가로 재유통됐다. 반면 독일산 수입은 13% 감소했고, 포르투갈산은 4,778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9일자

EU 참치 자숙로인 수입량 지난 5년 중 최대치

전년 대비 물량 17% 증가, 금액 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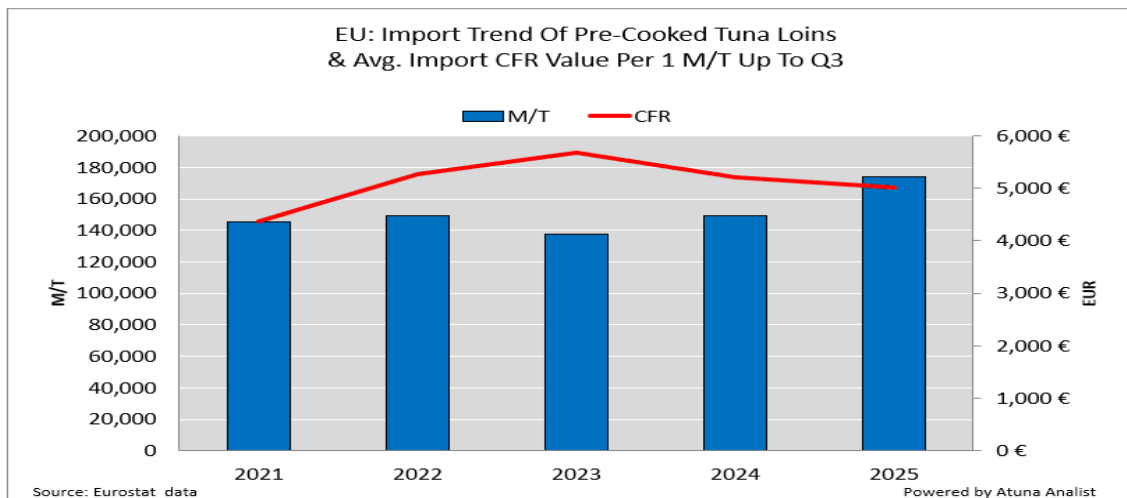
올해 1~3분기 유럽연합(EU)의 참치 자숙 로인 수입량은 17만 4,31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상반기 수입량이 11만 9,239톤에 달했고, 3분기에만 5만 4,895톤이 추가로 유입되며 하반기에도 높은 수입 흐름이 이어졌다. 다만 수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8억 7,326만 유로로 오히려 4% 감소해, 평균 수입 단가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非) EU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15만 4,868톤으로 17% 증가했으나, 평균 가격은 톤당 4,987유로로 5% 하락했다.

공급국별로 보면 중국이 최대 공급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산 수입은 상반기 3만 3,151톤, 3분기 6,476톤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이 중 약 3만 톤이 자율관세할당(ATQ)을 적용받아 무관세로 수입되며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었다. 반면, 아시아 기

타 공급국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져 인도네시아산과 필리핀산 수입은 각각 90%, 48% 증가, 저가 가다랑어 로인 위주의 베트남산은 무려 391% 급증하였다. 이에 비해 파푸아뉴기니·솔로몬제도·모리셔스산 수입은 감소했고, 중미 지역에서는 엘살바도르산만 21% 증가(2,720톤)를 기록했다.

EU 역내에서는 스페인산 로인 수입이 1만 2,708톤으로 67% 증가했으나, 가격은 톤당 6,131유로로 12% 하락해 가격 조정 압력이 확인됐다. 반면 포르투갈산 로인은 톤당 1,801유로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35% 감소해, 단순 가격 요인만으로는 수요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올해 EU 자숙 로인 시장은 물량 확대·가격 하락이라는 구조적 특징이 뚜렷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7일자





호주 참치 시장, 인증 중심 구조로 이동

2026년 호주 판매 통조림의 2/3 MSC 제품 예상

세계 최대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알디(Aldi) 호주가 유통하는 참치 통조림 제품에 MSC 인증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알디 호주에 따르면, 자사 PL 브랜드인 '오션라이즈'와 '포트뷰' 통조림 참치 제품은 2026년까지 전량 MSC 인증 원료만을 사용하게 된다. MSC 인증 참치 제품 출시는 이미 2025년 10월부터 알디 매장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조치는 알디 호주의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모기업인 Aldi South Group이 2025년 1월 글로벌 식품 유통업체 최초로 MSC의 신규 개선 프로그

램을 조달 정책에 반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MSC의 앤 가브리엘 오세아니아·싱가포르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는 이번 결정으로 2026년까지 호주에서 판매되는 참치 통조림의 2/3가 MSC 인증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MSC 참치 통조림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현재 호주 시장에는 120종 이상의 MSC 인증 참치 제품과 11개 인증 브랜드가 유통 중이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6일자

베트남, 모든 어선 데이터베이스 등록

8만여 척 이력 추적과 국제 규정 준수 강화

베트남은 2017년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은 이후, 올해 말 예정된 EC 실사를 앞두고 규제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강화, 전자어획증명 의무화, 해상 및 항만에서의 위반자 단속 강화 등 수산 부문 전반에 대한 감독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참치 어선을 포함한 모든 어선이 'VNFishbase'로 불리는 베트남 국립 수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치 및 기타 수산물 어선 100% (총 7만 9,360척)가 등록 및 정보 업데이트를 완

료했으며, 이는 이력추적성과 국제 규정 준수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된다.

12월 중순에는 팜밍쨥 총리가 정치 지도자와 중앙 기관, 지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IUU 어업 문제를 논의하는 국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EC 옐로카드 해제와 직결된 IUU 어업 근절 노력을 치하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올해 초 WCPF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참치 조업선은 5,766척으로 집계됐으며, 업종 전환과 운영 중단으로 참치 어선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16일자

에콰도르 참치업계, 완제품 수출로 전환

AI 도입 등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

에콰도르 참치 가공업체 테코페스카(Tecopesca)가 기존의 유럽 가공업체 대상 참치 냉동 자숙로인 수출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유럽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조림 완제품 수출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테코페스카의 모기업인 비전그룹(Grupo Corporativo Vision)의 리카르도 에레라 사장은 이러한 변화가 테코페스카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라, 에콰도르 참치 업계 전반에서 진행 중인 구조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테코페스카는 에콰도르 참치 산업의 중심지인 만타에 26년 전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 하루 약 350톤의 참치 제품을 생산하며 2,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에콰도르 최대 수출업체 중 하나인 테코페스카는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EU 시장을 주력으로 유지하면서도, 북미와 라틴아메리카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모기업인 비전그룹은 연간 약 3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참치 사업이 약 70%를 차지한다. 그룹은 새우 가공업체 빌보사(Bilbosa)도 보유하고 있다.

테코페스카는 약 2만 3,000톤 규모의 에콰도르 최대 참치 원어 보존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원료 조달과 생산 계획에서 높은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체 어선을 보유하지는 않지만, 대서양·인도양·태평양 전반의 글로벌 공급업체와 장기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 참치 업체들은 반가공 제품 수출에서 벗어나, 독일과 중부 유럽 등 소매업체에 통조림 완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일정한 품질의 완제품을 선호하는 유럽 소매업체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히 80g 통조림 3개 묶음인 ‘R-80’ 포장 방식 등 유럽 표준에 빠르게 적응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과 더불어 2024년 동부태평양의 기록적인 가다랑어 풍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아시아산 참치에 부과된 관세에 따른 반사이익이 맞물리며, 에콰도르의 대EU·대미 참치 통조림 수출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다변화도 진전돼, 테코페스카는 최근 무관세 협정을 통해 중국에 참치를 공식 수출한 첫 에콰도르 기업이 됐다.

한편, 테코페스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 설비뿐 아니라 공정과 가치사슬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고 있다. 에레라 사장은 “이미 5년 전부터 AI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라며, “글로벌 대형 가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기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러한 완제품 중심 전략, 기술 투자, 수출 시장 다변화가 맞물리며 에콰도르 참치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7일자



PNG 참치 산업, 선단·가공 확대로 성장 지속

외국 선단 35% 현지 의무 양륙이 투자 및 고용 확대 견인

파푸아뉴기니(PNG) 참치 산업이 선단 규모 확대와 현지 가공 능력 증대를 기반으로 2026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PNG 어업협회(FIA)와 현지 당국에 따르면, 2024년 기록적인 어획량 증가와 함께 유럽연합, 태국, 필리핀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며, PNG는 글로벌 참치 공급망에서 핵심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2024년 PNG의 참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6만 8,000톤을 기록했다. FAO는 이 물량이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18%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FIA의 마르셀로 이달고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024년의 급격한 성장 이후 생산은 점차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2025년 최종 어획량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종 구성도 2024년 일시적으로 비중이 확대됐던 황다랑어가 줄고, 가다랑어 비중이 약 60%로 회복되며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현재 PNG 수역에서는 50척 이상의 어선이 조업 중이며, 외국 선단의 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대만의 페어웰 피셔리 그룹은 올해 PNG의 MSG 인증 어업에서 조업하는 선박 5척을 추가했으며, 2026년에는 3척을 더 투입할 계획이다. 대만의 쿠오슝 피셔리 역시 선박 4척을 FIA 명단에 추가하며 PNG 선단에 합류했다. 이달고 COO는 조업이 나우루형 정당사국(PNA) 수역보다 어군이 풍부한 PNG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NG 정부는 외국 선단에 어획물의 35%, 자국 선

단에 25%를 현지 항구에 의무적으로 양륙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자국 가공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 정책 효과로 2024년 현지 가공 물량은 11만 9,000톤을 돌파했다. 가공 인프라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다. 2023년 폐쇄됐던 라에 지역의 마제스틱 튜나 공장은 대만 FCF와 필리핀 프라벨 그룹의 인수로 2025년 3분기 재가동에 들어갔으며, 프라벨 그룹은 기존 공장의 냉동 설비도 확충했다. 또한 PNG 정부는 필리핀 RD 코퍼레이션과 협력해 마당 지역에 일일 300톤 처리 규모의 신규 통조림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PNG가 속한 중서부태평양(WCPO) 전체의 2024년 참치 어획량은 302만 톤으로 1970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급 확대는 태국 방콕과 일본 야이즈 등 주요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FIA는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첫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 최초로 폐그물 등 ‘유령 어구’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성 강화에 나섰다. 업계는 선단 확대, 가공 능력 증대, 정책 지원, 지속가능성 강화가 맞물리며 PNG 참치 산업이 중장기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7일자

태평양 보호구역 어업 개방 조치 합의

업계의 어업 확대 노력 지속

서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위원회(WESPAC)는 일부 미국 태평양 해양국립기념물 수역에서의 상업적 어업 개방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WESPAC은 12월 16~17일 열린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 유산’, ‘로즈 아틀 섬’, ‘마리아나 해구’, ‘파파하나우모 쿼케아 해양국립기념물’에서 상업적 어업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해양기념물을 포함한 미연방 수역에서 상업적 어업 기회를 확대하고 규제 부담 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Donald Trump 대통령의 4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WESPAC은 이 조치가 참치 산업 의존도가 높은 하와이와 아메

리칸사모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메리칸사모아를 대표하는 타울라파파 윌 소드 WESPAC 의장은 “미국 어업자는 건강한 미국 수역의 어획물이 필요하며, 핵심은 ‘우리의 어획물을 먹는 것’”이라고 밝혔다. WESPAC은 강화된 규제와 보호종 보호 조치, 강력한 모니터링, 기초 연구와 적응형 관리가 병행된다면 어업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적 쟁점과 일부 반대, 연방 연구 예산 부족 등으로 실제 이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9일자

日, 원양 참치 연승어선 감척 방침 공개

IOTC 감척 권고에 37억 엔 편성

일본 수산청은 12월 16일, 원양 참치 연승어선 재편 준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연례회의에서 어획능력(척수)을 원칙적으로 30% 감축할 것을 권고받은 데 따른 조치로, 일본 원양 참치연승어업 전반에 상당한 감척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일본 수산청은 2025년도 보정예산에 관련 예산으로 37억 엔을 편성했으며, 재편을 목표로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자에게 구제비 교부금과 처리비 교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제비 교부금은 2년

이상 원양 참치연승어업을 영위하고, 정부가 인정한 재편 준비 실시계획에 따라 폐업한 중소 규모 어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처리비 교부금은 스크랩 처분을 통해 어선을 해체·재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 교부된다.

재편 준비의 실시기간은 2025년도이며, 관련 계획의 인정 및 폐업 신고는 2026년 3월 말까지 진행된다. 인도양이 냉동 핏감용 참치의 주요 어장인 만큼, 이번 감척 조치는 향후 글로벌 참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2월 16일자



美, 태평양 도서국 관세 완화로 도서국 경쟁력 제고

中 선단 확장에 대한 간접 대응

미국 의회가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참치를 포함한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협력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재확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 12월 중순, 에드 케이스 하와이 하원의원은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번영 및 경제 회복력 증진법(PROSPER 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태평양 도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케이스 의원은 2020년 만료된 일반특혜관세 제도(GSP)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GSP 종료 이후 참치, 사탕수수, 생강, 토란 등 주요 품목이 더 이상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지의 국영 기업 PAFCO는 미국의 대표적 참치 브랜드인 범블비에 날개다랑어 로인을 공급하는 핵심 수출업체다. 2025년 상반기 피지의 대미 로인 수출량은 5,04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수출 흐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역시 PROSPER 법안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PIF는 태평양 도서국들이 작은

시장 규모, 지리적 고립, 높은 운영 비용과 노동력 제약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하다며, 그동안 미국 측에 GSP 혜택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참치 자원이 풍부한 태평양 지역에서, 도서국 내 사업체 설립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지정학적 판단이 깔려 있다. 케이스 의원은 PROSPER 법안이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를 넘어서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주도 개발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오세아나에 따르면, 2022~2024년 동안 활동한 중국 어선단은 약 5만 7,000척에 달하며, 전 세계 조업 활동의 약 4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국 선단의 조업 중 상당 부분은 태평양 도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쿡제도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일부 태평양 도서국들이 안보 및 경제적 이유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국가들의 경계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22일자

2025년 글로벌 참치 산업 결산

미 관세 충격 속 RFMO 관리 강화와 국제 규범 재편 가속

2025년 참치 산업은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을 계기로 글로벌 무역 질서, 국제 규범, 자원 관리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를 겪은 한 해로 평가된다.

참치 전문 매체 Atuna는 2025년을 관통한 주요 이슈로 미국의 관세 정책, 환율 변동, RFMO 회의의 성과, 국제 조약 발효, EU 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미국은 4월 징벌적 상호관세를 도입하며 태국·베트남산 참치 통조림 및 가공품에 최대 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적용을 앞두고 미국 수입업체들이 선적을 앞당기면서 상반기 미국의 통조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8만 1,639톤을 기록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태국(19%), 베트남(20%), 에콰도르(15%)의 관세율이 인하·확정됐으며, 주요 글로벌 가공기업들은 관세 부담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단체와 12개 주 정부, 범블비푸드·코스트로 등 주요 기업들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연방 대법원은 2026년 중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환율 변동 역시 참치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달러화 가치는 연중 유로화 대비 11.8%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EU 선단은 연료비 부담이 완화됐지만, 유로존 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EU 가공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2025년 RFMO 회의에서는 자원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과 한계가 동시에 나타났다. IOTC는 사상 처음으로 가다랑어 TAC(62만 8,606톤)를 설정하고 FAD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IATTC는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자원 회복을 반영해 2026년부터 조업 금지 기간을 단축했다. ICCAT는 서대서양 가다랑어 MP를 채택했으나, 눈다랑어·황다랑어 쿼터 합의에는 실패했다. WCPFC는 중서부태평양 참치 자원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MP를 채택했으나, 옵서버 확대와 해상 전재 규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제 조약 발효도 산업 환경을 변화시켰다. WTO 수산보조금 협정과 유엔 BBNJ 협정이 잇달아 발효되며 IUU 어업 금지, 공해 자원관리 강화,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참치 어업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26년부터 선망선의 참치 냉동 기준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실사 관련 기업 의무를 조정했다. 해당 조치는 노후 선박과 EU 가공업체 전반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EU-태국 FTA 협상은 아시아 생산국의 대EU 수출 확대 기대와 유럽 어업·가공업계의 반발 속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23일자

피지 국영기업, 수직계열화 기업으로 전환 추진

어선 확보 통해 원료·가공·수출 통합 전략 본격화

피지 국영 참치 가공업체 PAFCO가 어선 확보를 통해 원료 조달부터 가공·수출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참치 공급망 내 입지를 강화하고, 원료 수급 불안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미국 참치 통조림 브랜드 ‘범블비(Bumble Bee)’에 날개다랑어 로인을 공급해 온 PAFCO는 자체 선단 구축을 통해 원료 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가공·수출 전 과정을 통합하는 사업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사이야드 라이움 PAFCO 최고경영자(CEO)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직계열화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레부카에 본사를 둔 PAFCO는 연간 약 3만 톤 규모의 냉동 로인, 통조림, 어분, 어유 등을 생산하는 태평양 도서국 대표 가공업체다. 100% MSC 인증 어장에서 어획한 참치만을 원료로 사용하며, 4,0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다. 주력 제품인 날개다랑어 로인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통조림 제품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인근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PAFCO는 향후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EU 수출을 위한 협의도 이미 개시했다. 다만 그동안

기후 변화에 따른 어군 이동과 외국 선박 의존 구조로 인해 주력 원료인 날개다랑어 수급의 불안정성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PAFCO는 지정 선단을 확보해 냉동 원료 참치 공급을 확대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라이움 CEO는 “자체 선단을 통해 원료 조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연중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지 정부 역시 2025~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참치 조업선 확보와 냉동창고 운영을 핵심 우선과제로 제시하며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PAFCO는 2026년부터 새로운 중장기 전략 계획을 본격 시행해, 단순 가공업체를 넘어 제품 다각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피지 내수용으로 출시했던 ‘코코넛 크림 참치(Lomaiviti Special)’를 호주·뉴질랜드·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내장 등 부산물 활용을 확대해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태평양 도서국 간 협력 모델인 ‘동뉴브리튼 이니셔티브(ENBI)’를 통해 원료 공급의 안정성과 신규 수익원 창출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23일자

美, 연안 어업 보호 명분 IUU 제재 강화 외국 불법 어업 및 불공정 행위에 재난 선포 연계

미국 의회가 자국 수산업과 연안 지역 사회 보호를 명분으로 IUU 어업과 외국 세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낸시 페이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은 지난 11월 19일 「2025년 미국 어업 보호법(Protect American Fisheries Act of 2025)」을 하원에 재발 의했으며, 1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법안이 매그너슨-스티븐스법의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외국 행위로 인해 미국 어업 공동체에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연방정부의 ‘재난 선포’ 발동 근거로 명시하는 데 있다. 법안

이 통과되면 미국 상무부 장관은 연방 평가 과정에서 외국 어업 활동의 증거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검토 대상에는 IUU 어업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 시장 왜곡 보조금, 약탈적 가격 책정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현장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미 해안경비대는 태평양 전역에서 IUU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괌을 모항으로 한 경비함이 미크로네시아·팔라우 EEZ에서 단속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입법 추진과 현장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23일자

中 참치 선사, 신조 선망선 투입으로 선단 현대화 노후선 대체를 통한 수익성 회복 기대

중국 원양선사 상하이카이창이 신조 참치 선망선 인수를 완료하며 선단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사는 참치와 남극크릴 어업 및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으로, 2016년 스페인 통조림 업체 콘세르바스 알보를 인수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2월 초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번 선망선 도입이 선단 현대화와 글로벌 참치 시장에서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신조 선박 ‘Junmeto’호는 중국 푸젠 마웨이 조선소에서 총 2,288만 달러를 투입해 건조됐으며, 2025년 12월 10일 마셜제도 소재 합

작 자회사 팬 퍼시픽 피셔리즈에 인도됐다.

‘Junmeto’호는 기존 노후 선박 ‘Lojet’호를 대체하며, 강화된 안전 기준과 최신 어업 기술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는 이번 선박 도입으로 참치 선망선단의 운영 효율과 어획 능력이 개선돼 전반적인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카이창의 2024년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3억 2,000만 위안을 기록했으나, 해양어업 부문 실적 부진으로 순이익은 59% 감소한 6,120만 위안에 그쳤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31일자



베트남, 태평양 참치 어획량과 어선수 감소

어획량 감소에도 수출실적은 수년간 상향 추세

2024년 베트남의 중서부태평양(WCPO) 참치 어획량과 어선 수는 감소했으나, 참치는 여전히 베트남 수산물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어획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은 중장기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산업 구조의 이중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따르면, 협력적 비가맹국인 베트남은 2024년 국적 선단의 참치와 참치 유사종 어획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참치 어획량은 14만 2,113톤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으며, 최대지속생산량(MSY) 20만 톤에는 미치지 못했다.

어종별 어획량은 가다랑어가 7만 2,642톤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황다랑어 2만 3,457톤(16.5%), 눈다랑어 1,230톤(0.9%), 날개다랑어 285톤(0.2%) 순이었다. 이와 함께 몽치다래, 물치다래, 백다랑어, 점다랑어 등 참치 유사종의 어획량도 4만 톤을 넘으며 전체 실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업 선단 규모도 축소됐다. 2024년 베트남의 참치 어선 수는 5,766척으로 전년 대비 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손낚시 어선이 2,538척(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망어선 2,230척(38.7%), 자망어선 995척(17.3%), 연승어선 3척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에서 선박이 다른 어업으로 전환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면서 전체 어선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수역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 국적 어선은 없으며, 베트남 어선 역시 WCPFC 관할 수역이나 타국 수역에서 조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참치는 베트남 수산물 수출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참치 수출액은 2017년 5억 9,300만 달러에서 2022년 10억 달러로 증가하며, 5년간 약 28% 성장했다. 참치는 2024년에도 금액 기준으로 베트남의 수출 어종 상위 3위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 시장은 미국, EU, 중동, CPTPP 회원국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2024년 베트남은 미국에 통조림 1만 5,955톤과 냉동 자숙 로인 1만 1,031톤을 수출했다. 다만 올해 초 미국이 베트남산 참치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향후 수출 여건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로는 통조림 1만 2,814톤과 냉동 로인 6,133톤이 수출됐다. 그러나 베트남은 2017년부터 IUU 어업 문제로 EU의 '옐로카드'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는 불법 조업 근절과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카드 해제를 추진 중이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24일자

소말리아 인근, 해적 활동 재확산 조짐

中 참치 어선, 1월 초 피랍... '24년에도 피랍된 선박

최근 소말리아 인근 인도양 해역에서 해적 습격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적 참치 어선이 다시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황다랑어 어선 '랴오동위(Liao Dong Yu) 578'호는 지난 1월 1일 소말리아 수역에서 해적에게 납치돼 승선자 전원이 몸값을 목적으로 억류됐다.

해당 선박은 2024년 11월에도 푼틀란드 연안에서 조업 중 해적에게 피랍됐다가, 약 200만 달러의 몸값을 지불한 뒤 2025년 1월 풀려난 전력이 있다. 특정 선박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피랍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말리아 수역의 해양 안보와 법 집행 역량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 해군(EUNAVFOR)은 '아탈란타 작전'을 통해 이 지역 해양 안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해당 선박이 소말리아 연안 불법어업(IUU)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으며, 납치 당시 황다랑어를 어획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현재 IOTC 선박 명단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 출처: 2026년 1월 다수 외신 보도

日, 새해 참다랑어 경매 역대 최고가 기록

푸 자선재단 "참다랑어 자원 보호 계속 이어 나가야"

2026년 1월 5일 새벽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연례 신년 첫 참치 경매에서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이 다시 쓰였다. 일본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 운영사 키요무라는 아오모리현 오마 앞바다에서 어획된 243kg의 참다랑어를 5억 1,030만 엔(약 324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2026년 1월 5일 새벽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연례 신년 첫 참치 경매에서 역대 최고 낙찰가 기록이 다시 쓰였다. 일본 초밥 체인 '스시잔마이' 운영사 키요무라는 아오모리현 오마 앞바다

에서 어획된 243kg의 참다랑어를 5억 1,030만 엔(약 324만 달러)에 낙찰받았다.

이번 경매와 관련해 푸 자선재단은 참다랑어 자원 회복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푸 자선재단의 데이브 거쉬먼 선임 담당관은 한때 붕괴 직전까지 갔던 참다랑어 자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장면이라며, 2017년 수립된 자원 회복 계획과 과학 기반 관리 조치가 지속돼야 태평양 참다랑어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출처: Atuna, 2026년 1월 5일자

페루 홈볼트오징어 가격 하락 압력 확대

아르헨티나산 일렉소오징어는 안정세

중국 도매시장에서 페루산 홈볼트오징어(대왕오징어) 가격이 49주 차(12월 1~7일)를 기점으로 급락했지만, 아르헨티나산 일렉소오징어 가격은 전주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냉동수산물 거래 플랫폼 화차이(Huacai)에 따르면, 페루산 홈볼트오징어 1~2kg 필렛의 49주차 도매가격은 톤당 기준으로 전주 대비 750위안(약 106달러) 하락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산 일렉소오징어 200~300g 제품의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은 신규 어획 물량 반입을 앞두고 기존 재고를 신속히 정리하려는 도매업체들의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페루산 홈볼트오징어의 단기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페루 정부의 어업 재개 결정이 공급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페루 생산부는 지난 11월 21일 홈볼트오징어 어업을 재개하고, 3만 8,859톤의 추가 쿼터를 영세 어업 선단에 배정했다. 해당 쿼터의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중국 저우산 국제농수산물무역센터(ZZIATC)가 12월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산 오징어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급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가공업체들이 여전히 기존 물량을 소화 중인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유입될 경우 단기적

으로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 역시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르헨티나산 일렉소오징어에 대한 중국 시장의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 48주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선단은 현재 남서대서양으로 이동 중이며, 아르헨티나 EEZ 인근에서 12월 중 조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 자국 선단의 일렉소오징어 조업은 아르헨티나 어업위원회가 국립 수산연구개발기구의 과학적 자문을 검토한 이후,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어업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남위 49~52도 수역에서의 조업은 1월 2~7일 사이에 시작되며, 1월 7일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선박만 남위 44도 이남 수역 진출이 허용된다. 나머지 선단은 1월 12일부터 해당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다.

ZZIATC는 아르헨티나 일렉소오징어 신규 어획량의 초도 물량이 이르면 2월 중 중국 항구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4일자

페루 홈볼트오징어 어업, 지속가능성 진전 정부 조치 성과 거뒀으나 국제 공조 여전히 필요해

홈볼트오징어위원회(CALAMASUR)는 페루 홈볼트 오징어 어업이 2025년 규제 강화와 위성 모니터링 확대에 힘입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CALAMASUR에 따르면 2025년 페루의 홈볼트오징어 어획량은 약 50만 톤에 달했다. 이는 2024년 18만 8,300톤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홈볼트오징어 어업의 경제적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어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페루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편이 있었다. 페루 정부는 2025년 3월, 약 15년 만에 홈볼트오징어 어업 관리 규정을 개정해 조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알폰소 미란다 CALAMASUR 회장은 그동안 관리 체계가 부족했던 홈볼트오징어 어업이 본격적인 규제 중심 관리 단계로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 선단이 페루 영해에 진입할 때 페루의 위성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조치가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선단, 특히 중국 선단의 무단 진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영세 어업 분야의 현대화도 진전됐다. 엘사 베가 페루 영세어업협회 회장은 규제 개편 이후 영세 선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2025년 기준 영세 어선의 위성 추적 범위는 약 47% 확대되었으며, 현재 약 2,350척이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550척 이상의 선박이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에 등록됐으며, 약 1,200척에는 비상 무선 표지가 장착돼 해상 안전도 개선됐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외국 선단의 페루 영해 진입은 줄었지만, 페루 EEZ 경계 인근 공해상에서의 조업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어획 노력량 관리 부족, 이력 관리의 미흡함, 불법 선박 및 조선소에 대한 법 집행력 부족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페루 홈볼트오징어 어업은 현재 MSC 어업 개선프로젝트(FIP)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이후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학에 기반한 관리와 지속적인 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22일자

아르헨티나, 오징어 성어기 앞두고 단속 강화

불법 오징어 조업 中 선박 적발

아르헨티나 해군은 외국 어선에 의한 어업 압력이 집중되는 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자국 수역 단속을 강화하였고, 자국 EEZ 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외국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12월 4일,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감시·통제 작전 ‘마레 노스트룸(Mare Nostrum) VI’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단속은 오징어 어기를 맞아 외국 어선단의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식 추산에 따르면 성어기 동안 아르헨티나 수역 경제 인근에서 계절적으로 조업하는 외국 선박은 400

척이 넘는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중국 국적선이며, 스페인·포르투갈·러시아·바누아투 국적 선박도 포함돼 있다.

‘마레 노스트룸 VI’는 2025년 초부터 시작된 상시 단속 정책으로, 해군 함정과 해군 항공 자산, 지휘통제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EEZ 및 인접 해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조업을 찾아내고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출처: Ushuaia24, 2025년 12월 14일자

일렉스 오징어, 높은 가격·中 재고 문제 등 이슈

높은 가격 문제로 인해 국제 시장 수요 재편 관측돼

1월 초 어기 시작을 앞둔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자원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시장 환경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르헨티나 오징어채낚기어선주협회(CAPA)의 회장은 현재 수요가 강한 가운데, 세계 최대 오징어 가공·소비국인 중국의 재고 부족이 가격 하락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루 조업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기 초반 어체 크기와 어획 물량이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일부 시장에서는 구매 방식이 바뀌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

무역업체 리더필 그룹의 상무는 가격이 너무 높아지자, 일부 미끼 시장에서는 오징어 대신 더 저렴한 다른 어종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징어 구매 관심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 영향으로 중국의 재가공 수요는 일부 약해졌지만, 중국 내 소비와 수출을 포함한 전체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글로벌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구조 속에서 가격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가격 상승 시 육상 동결 오징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 동시에 지속가능성, 이력추적성, 공해 외국 선단과의 경쟁 문제도 주요 관찰 대상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7일자

아르헨, 일렉스 오징어 조업 1월 초 시작

가격 강세 속 초기 어황과 물량에 관심 집중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의 주요 어업 중 하나인 일렉스 오징어 어업을 2026년 1월 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오징어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재고 부족과 수요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이번 어기의 수급과 어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연방어업위원회(CFP)에 따르면, 2026년 일렉스 오징어 어기는 2026년 1월 2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남위 49도에서 52도 사이 해역에서 남부 파타고니아 자원을 대상으로 최소 3일 이상 조업한 선박이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장려 조치의 하나로 1월 7일부터 북쪽으로 이동해 남위 44도 이남의 남부 관리 구역 북부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다.

어기 초반 남부 파타고니아 조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채낚기 어선들은 1월 12일부터 조업이 허용된다. 아르헨티나 오징어채낚기어선주협회(CAPA)의 후안 레디니 회장은 “이번 오징어 어기도 어황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서는 조업 개시 시점을 더 앞당겨 달라는 요청도 제기되었다. 선사들은 하계 산란군이 이미 번식을 마친 상태인 만큼, 조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자원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 조업 시작일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번 결정은 국립수산연구개발원(INDEP)과의 협

의를 거쳐 이뤄졌다. INDEP는 하계 산란군이 보통 2월 중순까지 남위 44도에서 48도 사이 해역에서 분포하며, 이 구역에서 남부 파타고니아 자원이 섞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4년간 남위 49도 이남에서의 조업 결과는 자원의 이동 시기와 직전 어기의 높은 어획량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어기 초반에 나타나는 조업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부 오징어 혼획 트롤 어선에서 이미 긍정적인 조업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 무역업체 리더필 그룹의 소피아 라마에르 상무는 “초기 어획량과 첫 출어 선박들의 조업 흐름이 어기 전체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혼획을 진행 중인 트롤 어선의 물량 면에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트롤 어선이 어획한 오징어는 아직 소형 개체가 많다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7일자



페루 홈볼트오징어, 침체를 넘어 회복 국면 진입

'24년 저점 이후 '25년 어획량 189% 증가

페루 홈볼트오징어(대왕오징어) 어업이 2024년의 급격한 침체를 딛고 2025년 들어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며 국제 시장에서의 수요 회복력을 재확인했다.

수년간의 공급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무역 모두에서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며 페루 수산업 내 핵심 어종으로서의 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페루 생산부에 따르면, 2020~2024년 기간 동안 홈볼트오징어의 연평균 어획량은 약 45만 5,500톤이었으나, 같은 기간 생산량은 연평균 18.6% 감소하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이 기간 어획량의 90% 이상이 냉동 제품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홈볼트오징어 어업이 구조적으로 수출 지향적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생산부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2024년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생산을 기록했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어획량은 2023년 성수기 대비 약 70%, 비교적 정상적인 해양 여건으로 평가되는 2022년 대비 약 60% 감소했다. 이러한 급감은 가공 공장 가동률과 수출 물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냉동 오징어 수출의 급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2025년에 들어 급격히 반전됐다. 2025년 1~9월 홈볼트오징어 어획량은 52만 4,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이 가운데 95% 이상이 냉동 부문으로 공급되었으며,

신선 소비용 물량은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생산 회복은 곧바로 무역 확대로 연결됐다. 2025년 1~9월 페루의 냉동 홈볼트오징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약 6배 증가했으며, 한국과 스페인으로의 수출 역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에 이르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세 시장은 전체 수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아시아와 유럽 전반에서 홈볼트오징어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홈볼트오징어 어업은 페루 국내 경제에서도 다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2025년 1~3분기 기준, 홈볼트오징어는 멸치에 이어 페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어업으로 평가됐으며, 직접식용 어업 생산 부문 총생산액의 약 14%를 차지했다. 또한 직접식용 어획량의 40% 이상을 담당하며, 페루 연안 지역에서 약 7만 1,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23일자

中 선단 남서대서양 일렉스오징어 조업 호조

페루 공급 확대와 중국 선단 어획 증가로 가격 하락

2026년 1월 첫째 주 중국 시장에서 페루산 홈볼트 오징어와 아르헨티나산 일렉스오징어 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페루의 공급 호조와 남서대서양에서 조업 중인 중국 원양 선단의 높은 어획량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 냉동수산물 무역 플랫폼 화차이에 따르면, 페루산 홈볼트오징어 필렛 1~2kg 사이즈 가격은 2025년 마지막 주 대비 톤당 450위안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아르헨티나산 일렉스오징어 200~300g 사이즈 가격도 톤당 3만 6,250위안으로, 전년 51주 차 대비 500위안 낮아졌다.

홈볼트오징어 가격은 페루의 생산량 증가로 2025년 말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9월 페루의 홈

볼트오징어 생산량은 52만 4,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으며, 냉동 홈볼트오징어 수출액도 10억 800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국행 수출은 약 6배 증가해 전체 수출 확대를 주도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현 공급 여건이 유지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반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화차이 측은 페루가 2026년에도 쿼터를 50만 톤으로 유지할 경우 홈볼트오징어 가격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역시 중국 선단의 꾸준한 어획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현지 어기는 1월 2일부터 시작됐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6년 1월 2일자

페루 홈볼트오징어 9월 어획량 71% 증가

페루 전체 어업 부문 견인

2025년 9월 페루 어업 생산량이 홈볼트오징어 어획량의 폭발적인 회복세에 힘입어 반등했다.

페루의 9월 총 어획량은 14만 1,4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9% 급증했다. 사료용 등 비식용(IHC) 멸치 어획이 규제 및 생물학적 요인으로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식용(DHC) 어획량이 72.2% 늘어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이러한 증가를 견인한 것은 홈볼트오징어 어획

량 증가였다. 냉동 수산물 부문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2.8% 증가한 9만 200톤을 기록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홈볼트오징어이다.

2024년 9월에 불과 100톤에 그쳤던 홈볼트오징어 어획량은 2025년 9월에 7만 4,700톤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는 2024년의 극심한 부진을 털어내고 생산이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22일자



러, 노후 선박 규제 대폭 강화

선령 30년 초과 선박, 매년 정기 검사

러시아 교통부는 선령 40년을 초과한 선박의 러시아 항만 입항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입법은 상업해운법, 내륙수로운송법, 항만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며, 특히 상업해운법에서 가장 광범위한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령 30년을 초과한 러시아 국적 선박은 매년 러시아선급(RS) 등 공인 기관으로부터 의무적인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현재 5년 주기 검사 제도를 대폭 강화한 조치다. 외국 선박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6개월의 러시아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정부가 일부 선종에 대해 예외를 둘 수는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선령 40년을 초과한 선박의 경우에는 러시아 항만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 또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선주뿐 아니라 화주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상업해운법 개정안에는 선령 30년 초과 선박에 대해 항만 사용료를 매년 10%씩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내륙수로운송법에는 ▲선령 30년 초과 선박의 연례 검사 의무화 ▲선급기관 기준에 따른 선박 상태 적합성 확인 ▲기준 미달 시 보험료를 기존 대비 10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18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효되며, 기준에 체결된 화물운송 계약에 대해서는 180일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다. 러시아 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선령 40년을 초과한 러시아 국적선과

외국 선박의 입항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는 203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추진은 지난 4월, VTB은행 회장이자 통합조선공사(OSK)를 관리하고 있는 안드레이 코스틴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노후 선박 운항 제한의 필요성을 직접 제안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현재 2030년까지 총 1,714척의 선박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OSK는 이번 개정안이 환경 리스크를 줄이고 국가 선단을 현대화하려는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히며, 이는 '2036 조선산업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OSK는 러시아 조선소들이 노후 상선 현대화를 수행할 충분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공정에서 우호국 파트너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되, 최종적으로는 러시아 내 건조를 통한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주들은 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30년까지 어선과 농산물 운반선의 최대 65%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선박 수는 약 1,350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해 러시아 농업부는 농산물 운반선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Finmarket.ru, 2025년 11월 27일자

안정적이던 동베링해 명태 자원 30% 급감

165만 톤 감소로 쿼터 설정 영향 불가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실시한 '2025 동부 및 북부 베링해 저층 트롤 조사' 결과, 미국 알래스카 연안 동베링해 명태 자원량은 380만 톤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평균인 460만 톤을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자원 상태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는 12월 초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되는 북태평양수산물관리위원회(NPFMC) 및 관련 자문기구 회의에 제출됐다. 앞서 11월 말 과학통계위원회는 연방정부 셋다운으로 인해 신규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자원평가 자료를 인용해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결과는 향후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계 기반 추정치에 따르면 동베링해 명태 자원량은 2024년 548만 톤에서 2025년 383만 톤으로 급감했다. 단 한 차례 조사 주기 동안 160만 톤 이상 감소한 셈으로, 감소 폭이 상당하다. NOAA는 이번 결과가 향후 쿼터 설정과 자원 관리 논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는 특정 연령군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감소를 보여준다. 총 개체수는 약 36% 줄었으며, 여러 연령군에서 동시에 감소가 나타났다. 체장 조성 자료에서도 강력한 신규 가입 연령군을 의미하는

뚜렷한 최빈값 이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자원 구조를 지탱해 온 2018년생 연령군은 여전히 관찰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유사한 규모의 연령군은 2025년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의 자원량 및 개체수 감소를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간적 분포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 지도를 보면, 상업 어획이 집중되는 중앙 및 남부 대륙붕 전반에서 명태 밀도가 뚜렷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가 북베링해로의 이동으로 보완되는 양상도 확인되지 않았다.

북베링해의 명태 자원량은 2025년 54만 8,000톤으로, 2023년 대비 51% 증가했으나, 동베링해에서 발생한 수백만 톤 규모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북방 한계선이나 더 깊은 대륙붕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자원 축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거 해수 온난화 시기에 나타났던 대륙붕단(shelf break) 부근의 밀집 분포 역시 2025년 조사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2일자



러, 수산물 수출관세 재도입 검토

투자쿼터 대상종 확대, 서베링해 명태 TAC 확대 등 검토

러시아 정부가 수산물 수출관세 제도의 재도입과 어획할당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2월 4일 정부에 수산물 수출관세 재도입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고차가공 국산 수산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출관세 제도는 2023년 9월 정부령으로 도입돼 2024년 말까지 적용됐으며, 달러-루블 환율에 따라 최대 7%의 세율을 부과하는 구조였다. 재도입 시 러시아 생산자의 부담 증가로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현재 계류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자목적

어획할당(투자쿼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다른 갑각류와 오징어, 조개류, 성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구체적으로는 북극분홍새우, 모란새우, 두점박이살오징어, 고동, 새치성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주요 어종 쿼터를 전량 경매에 부치는 방식의 타당성과 함께, 투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매 방식의 실현 가능성도 업계 단체와 공동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베링해 명태 TAC 확대와 북극항로 및 철도를 활용한 수산물 수송량 증대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2월 8일자

러 명태 H&G 가격, 여전히 고가 유지

가격 고점 유지로 현물 거래 선호

명태 가격이 당분간 고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러시아 판매업체들이 2026년 산 명태 H&G(머리·내장 제거) 물량에 대한 사전 계약 체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51주 차(12월 15~21일) 기준 중국 CFR 조건의 25cm 이상 냉동 명태 H&G 현물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더커런트가 2005년부터 집계한 가격 평가 기준으로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부 판매업체는 현재 현물가보다 톤당

165~265달러 낮은 수준에서 계약에 합의하고 있으나, 다수 업체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현물 판매를 선호하고 있다.

러시아 공급업체들은 1~2월 물량은 현물가 대비 톤당 165달러 낮은 수준, 3월 물량은 265달러 낮은 가격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과 유럽 바이어들은 물량 확보에 대한 우려 속에, 이중 동결 제품 계약에 앞서 H&G 원료 계약을 확정하도록 중국 가공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7일자

러, '25년 극동 명태 어획량 215만 톤 지난 25년간 최다치

러시아 연방수산청이 12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러시아 극동 지역의 명태 어획량은 215만 톤으로 집계돼 지난 2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만 1,900톤 증가한 수치다. 명태를 포함한 러시아 전체 수산물 어획량은 464만 톤에 달했다.

전체 생산은 극동 수역이 357만 톤을 기록하며 주도했다. 극동 지역에서는 태평양 청어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57만 5,400톤, 대구가 8% 늘어난 11만 4,500톤을 기록했으며, 가자미류는 7만 200톤이 어

획됐다.

수역별로 보면 북부 수역 생산량은 31만 2,800톤으로, 이 중 대구가 15만 7,000톤, 해덕이 5만 6,400톤을 차지했다. 서부 수역은 7만 7,100톤으로 스프랫 4만 1,300톤, 발트해 청어 2만 4,500톤이 주를 이뤘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는 멸치 어획 호조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4만 7,000톤을 기록했다. 불가-카스피해 수역 생산량은 8만 100톤이었으며, 해외 수역에서도 50만 2,700톤이 어획돼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 출처: 러 수산청, 2026년 1월 1일자

러, 극동 명태 A시즌 어기 개시

오호츠크해 전역 명태 쿼터 약 110만 톤 배정

지난해 역대 최다 어획량 기록을 경신한 러시아의 극동 명태 2026년 A시즌 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6년 러시아 명태 연간 쿼터는 242만 톤으로, 2025년 대비 약 2% 증가했다.

오호츠크해 명태 A시즌은 1월부터 4월까지 약 100일간 진행되며, 통상 이 기간에 해당 연간 쿼터의 약 80%가 어획된다. 조업은 1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명태를 비롯해 태평양청어와 대구가 주요 목표 어종이다. 업계는 이번 시즌 역시 양호한 어획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명태생산자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말 열린 극동 과학·상업위원회에서 오호츠크해 A시즌

명태 어획량이 전년 대비 3~4% 증가한 87만~8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성수기에는 하루 어획량이 1만 1,000~1만 2,000톤, 주간 어획량은 최대 7만 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타 지역 조업량을 포함하면, 올해 첫 100일간 러시아 전체 명태 어획량은 100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오호츠크해 전역에 110만 톤 이상의 명태 쿼터가 배정됐다. 한편, 서베링해 명태 쿼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설정된 수준이 유지됐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6년 1월 4일자



러, 서베링해 명태 TAC 확대 검토

美, 자원 감소로 실제 어획량 감소 예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6년 서베링해 명태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가능성과 함께, 신규 수출 관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산 부문 관련 법안 초안 마련을 정부에 지시했다. 러시아 정부는 수출 관세가 가공 수산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기존 투자 의무와 연계된 쿼터와는 별도로, 새로운 쿼터 경매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 초안도 12월 25일까지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주요어종의 쿼터 배분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명태협회(PCA)에 따르면 서베링해 명태

TAC는 당초 62만 7,000톤에서 약 10%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어획은 쿼터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TAC의 70%에도 못 미치는 50만 톤 미만이 어획됐다. 2025년 TAC 역시 한때 77만 5,200톤으로 확대됐으나 이후 69만 4,200톤으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MC)는 2026년 미국 베링해 명태 쿼터를 전년과 유사한 137만 5,000톤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최근 자원 조사에서 동부·북부 베링해 명태 자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 물량이 실제로 모두 어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8일자

러 명태 수출 경쟁력 강화

어획 호조와 가공 확대로 아시아, 유럽 시장 확대

러시아 명태업계는 어획 호조와 함께 펠렛·연육 등 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확대되면서, 한국·중국·일본과 유럽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뚜렷하게 강화했다. 러시아어업연합에 따르면, 9월까지 이들 4개 시장에 대한 러시아의 명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13억 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러시아는 미국과의 명태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4대 시장 수출액은 7억 1,300만 달러로 3% 감소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러시아의 명태 수출액은 34% 증가한 6억 3,4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17% 감소한 5,000만 달러에 그쳤다.

중국행 명태 H&G 수출에서도 러시아는 물량 43만 5,000톤, 금액 5억 6,500만 달러로 각각 증가세를 보였으나, 미국은 물량과 금액 모두 감소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명태 연육 수출이 크게 늘어 수출액이 약 두 배로 확대됐으며, 일본과 EU 시장에서도 펠렛과 연육을 중심으로 미국산 일부를 대체했다.

러시아 업계는 이러한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풍부한 어획량과 해상 가공 확대를 꼽고 있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12월 19일자

美 명태 필렛, 러 명태 관세 포함가보다 저렴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2026년 A시즌 명태 PBO(가시 제거) 필렛을 둘러싼 가격 인상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일부 판매업체와 유럽 바이어들은 시험적인 성격의 A시즌 계약을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했으며, 판매자들은 향후 계약에서 추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산 명태 제품의 가격 부담은 미국산보다 더 큰 상황이다. 러시아 판매업체가 제시하는 PBO 필렛 가격은 관세를 포함할 경우 미국산보다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러시아산 명태 H&G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중국 가공업체들도 이중 동결(double-frozen) 필렛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 바이어들은 러시아와 중국 측의 가격 제안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 가격은 이미 상승 흐름에 들어섰다. 언더커런트 추산에 따르면 12월 기준 미국산 필렛의 유럽 냉동창고 출고 가격은 전년 대비 약 16%, 톤당 550달러 상승했다. 미국 판매자들은 1월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여기 진행에 따라 톤당 200~300달러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미국산 명태 공급 부족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25년 B시즌 조업 부진으로 약 3만 2,000톤의 쿼터를 채우지 못했으며, 이 물량은 2026년 A시즌 어획으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규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알래스카만의 2026년 명태 쿼터가 전년 대비 26% 삭감되면서, 신규 공급 물량은 더욱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판매자들의 가격 전략도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이들은 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기준에서도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EU 관세율 13.7%를 적용할 경우 최종 가격은 미국산 계약 가격보다 톤당 200~250달러 높은 수준이 된다. 이러한 가격 자신감은 루블화 강세와 소비 증가로 약 5만 톤 규모로 성장한 러시아 내수 PBO 시장,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EU 제재로 유럽에 유입될 수 있는 합법적 러시아산 물량이 줄어든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원가 부담이 커지자, 유럽 소매업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독일의 알디와 레베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기존의 단일 동결 제품 원칙을 완화하고, 2025년부터 이중 동결 제품 구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독일 소비자들의 심리적 기준선으로 여겨지는 '피쉬핑거 1팩 3유로' 가격대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 바이어들은 가격 인상에 저항하고 있으나, 명태는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어종으로 평가된다. 대서양대구, 해덕, 북대서양대구 등 대체 흰살생선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산 대구 가격은 전년 대비 57%, 노르웨이산 북대서양대구는 58% 상승했지만, 명태는 46% 상승에 그쳐 상대적으로 인상 폭이 낮은 편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2026년에도 명태 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8일자

日 콩치 어획량, 6만 톤 돌파

11월 위판액 7년 만에 200억 엔 돌파

전국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2월 2일, 2025년 어기 11월 말 기준 콩치 생산 집계를 발표했다. 조합에 따르면 어체는 어기 초반에는 소형어 위주의 어획량이 적었으나, 어장이 연안으로 가까워진 11월 중순 이후부터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1월 한 달간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증가한 약 1만 5,000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 기준 누적 어획량은 6만 1,269톤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평균 가격은 10kg당 3,430엔으로

26% 하락했으나, 위판 금액은 210억 엔을 넘어서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200억 엔을 돌파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1월 주요 4개 항구에서 각각 3,000톤 이상이 양륙됐고, 11월 21일에는 전국 어획량이 2,044톤에 달했다. 12월 들어서도 어획 호조가 이어지면서 일부 어선은 개별 쿼터를 모두 소진해 조합은 쿼터 재분배로 대응하고 있다. 평균 어가는 kg당 100엔 수준까지 하락해 가공업계의 원료용 냉동 재고 확보도 진행 중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2월 3, 4일자

日, 콩치 어획량 세계 1위 국가로 복귀 유력

어획량 약 6.5만 톤으로 13년 만의 정상 탈환

2025년 일본 콩치 어업은 12월 상순까지 누계 어획량이 약 6만 5,000톤에 근접하며, 대만과 중국을 제치고 어획량 1위 국가로 부상하는 것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일본이 콩치 어획량 1위를 기록하는 것은 2012년 어기 이후 13년 만이다.

대만은 2013년 어기부터 12년 연속으로 어획량 1위를 유지해 왔으며, 일본은 2019년 이후 중국에 밀려 3위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올해 일본은 11월 말 기준 6만 1,269톤을 어획했으며,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12월 초순 추가 어획 약 3,500톤을 포함해 잠정적으로 6만

5,000톤 수준에 도달했다.

반면 대만 선단은 9월 중순까지 쿼터를 모두 소진하고 조업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태평양어업위원회 어획 한도 준수를 전제로 할 경우, 일본의 어획량이 대만을 웃도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다. 중국 역시 합의된 어획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콩치 조업은 12월 초순까지 이어졌으나, 거친 기상으로 어군을 놓치며 9일자로 종료됐다. 어획량은 전년 대비 크게 늘었지만, 일본 선단의 TAC 소진율은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12월 23일자

日 언론, 日 꽁치·살오징어 어획량 개선 원인 분석

해류 변동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영향...관리 필요성 제기

최근 여러 어종에서 어획량 감소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2025년 꽁치와 살오징어 어획량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오징어 어업은 TAC(총허용어획량) 설정으로 어기와 어획량이 제한됐지만, 꽁치의 경우 어기 초반 크기가 크고 지방 함량이 높은 선어가 유통되며 소비 여건이 일부 개선됐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약 7년 9개월간 지속돼 온 '쿠로시오 대사행'의 종식이 지목된다. 쿠로시오 대사행은 세계 2위 규모의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의 경로가 평소보다 크게 남하해 일본 연안의 어업 환경과 기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현상으로, 일본 언론은 해류 변화가 어획량 회복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다수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

실제로 2022년 말부터 2025년 1월까지 일본 산리쿠 근해의 해수온은 평년 대비 약 6℃ 상승했다. 쿠로시오 연장 해류가 북쪽으로 치우쳐 흐르며 한류성 어종의 남하 경로에 고수온 '장벽'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회유가 제한되며 자원 가입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025년 2월 이후 쿠로시오 대사행이 점차 해소되면서 고수온 현상이 완화됐고, 오야시오 해류의 영향 범위도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오야시오 해류 회복으로 영양염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꽁치의 주요 먹이인 대형 동물 플랑크톤, 특히 네오칼

라누스속의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랑크톤 증가는 꽁치의 어체 크기와 지방 함량 개선으로 이어졌다. 수산자원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연안 인근 해역에서는 100~120g급 개체가 주류를 이뤘고, 2019년 이후 보기 드물었던 130g 이상 대형 개체도 흔해졌다. 반면 먼바다 해역에서는 여전히 90~100g대의 작고 마른 개체가 중심을 이뤘다. 전문가들은 아직 일부 수역에 국한된 현상이지만, 꽁치 품질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쿠로시오 대사행의 종식은 살오징어 어획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5년 1~10월 일본 전국 살오징어 어획량은 1만 7,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며,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어획량이 급증해 일부 어업에 조업 정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고수온 장벽이 사라지며 오징어의 북상 경로가 회복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해양 환경 개선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지만,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지방 함량이 높은 꽁치는 아직 일부 해역에 한정되어 어획되고 있으며, 살오징어는 1년생 어종으로 과도한 어획 시 자원 고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본 수산업계는 해류 정상화라는 환경 변화를 계기로, 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병행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6년 1월 1일자

日-러 어업 협상 연내 결렬

대구 조업 차질 현실화...공치 어업 여파 가능성도 우려

일본과 러시아 간 2026년 어업 협상이 또다시 해를 넘기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 어선들은 연초 러시아 수역에서의 태평양 대구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향후 태평양 공치 조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2025년 12월 25일, 러시아와 진행한 2026년 조업 조건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됐다고 확인했다. 앞서 11월 1차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12월 24일까지 추가 논의가 이어졌으나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해당 협상은 1984년 체결된 일·소 연안 어업 협정을 근거로 일·러 어업위원회를 통해 매년 진행되며,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호 조업 조건과 어종별 할당량을 설정하는 절차다. 통상 대부분의 해에는 연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만, 2025년 조업을 다룬 지난 협상은 이례적으로 지연된 바 있다.

이번 협상 실패는 2025년 어기 협상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시에 11월과 12월 협상이 연이어 결렬된 뒤, 이듬해 5월에 이르러서야 기록적으로 늦은 시점에 합의가 성사됐다. 해당 협상에서는 어종별 할당량과 관련 수수료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고, 결국 2025년 공동 쿼터를 전년의 절반 수준인 2만 2,000톤으로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교착 상태 역시 어종별 쿼터가 핵심 쟁점이다. 일본 측은 태평양 공치와 태평양 대구를, 러시아 측은 고등어와 정어리 할당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조업이 제한됐던 오징어 및 기타 어종에 대한 쿼터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일본 선단에는 이미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12월 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러시아 EEZ 내 태평양 대구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어업 활동은 2026년 초에는 건너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태평양 대구는 연례 협정에 따라 통상 1~2월과 11~12월에 일본 선단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해 온 어종이다.

수산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연초 태평양 대구 조업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해당 어종의 주요 어기는 역사적으로 11월에 시작되며 일본 선단도 2025년 11월부터 이미 조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상의 초점은 태평양 공치로 옮겨가고 있다. 관계자들은 태평양 공치 어업이 향후 협상의 다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박 준비와 조업 계획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협상 지연이 늦봄까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태평양 공치 시즌은 통상 7월에 시작돼 8월에 본격화된다. 2025년에는 일본 선단이 1만 4,569톤의 할당 쿼터를 바탕으로 10월 러시아 EEZ에 진입했다. 업계 소식통은 조업 계획과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늦어도 5월경까지는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으며, 수산청 관계자 역시 일본 수산업계가 같은 요청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28일자

美 상온보관 수산물 소매 매출, 11월에 반등

냉동 수산물 부문, 여전히 난조

미국 상온보관 수산물(통조림·파우치 포함) 소매 매출이 10월 부진을 딛고 11월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소매 시장 분석을 수행하는 210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11월 미국 신선 수산물 소매 매출액은 6억 6,300만 달러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과 판매량이 모두 증가한 부문은 상온보관 수산물이 유일했다.

올해 11월 미국 상온보관 수산물 소매 매출액은 2억 5,2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으며, 판매량도 4.6% 늘었다. 210 애널리틱스의 앤-마리 루어링크 대표는 “11월 중순까지 이어진 미국 정부 셧

다운 기간 동안 소매업체가 주도한 푸드뱅크 지원 활동이 상온보관 수산물 수요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상온보관 참치가 11월 매출액 1억 6,86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다만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품목은 정어리로, 매출액 2,76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금액 기준 27%, 판매량 기준 31.8% 증가했다. 한편, 냉동수산물 매출액은 5억 6,89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며, 판매량 감소를 물가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평가됐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6일자

日, 中 원양선단 단속 위해 남미 4개국에 물자 지원

감시용 드론, 순찰 및 분석 장비 등 지원 예정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에콰도르·페루·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의 불법어업 감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안보 관련 물자를 제공했다. 해당 지역의 불법어업에는 주로 중국 원양선단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본이 지원하는 물자는 연안 감시용 드론, 순찰용 고무보트, 항공사진 분석 장비 등으로, 선박이 GPS를 비활성화하는 구역에서도 국적, 승선 인원, 조업 패턴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선단은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동하거나 남대서양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외무성은 해당 지원을 위해 2026년 3월 종료 예정인 회계연도 추가 예산으로 3억 엔을 편성했으며, 물자 지원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각국은 중국 선단의 활동이 IUU 어업, 수산자원 고갈, 해저 정보 수집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국 주변 해역에서 중국 선단과 관련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양안보와 선원 복지 문제를 공유하며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출처: 닛케이, 2025년 12월 28일자

美, 수산물 규제 완화 의견 수렴 재개

'수산업 경쟁력 향상' 목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섯다운 종료에 따라 '미국 수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은 참치를 포함한 미국 어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간소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NOAA는 당초 지난 10월 중순까지 초기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섯다운으로 절차가 중단되면서 일정이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의견 수렴 기간을 202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새롭게 정했다.

NOAA는 이번 절차를 통해 유예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어업규정, 참치 및 기타 어업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업 관리와 과학 체계 개선, 시험어업 허가 확대를 통한 조업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요청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17일 서명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국내 수산물 생산을 늘려 미국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 출처: Atuna, 2025년 12월 3일자

美 수산물 수입업체, 전년 대비 관세 6배 증가 관세 철회 기대 속 환급 지연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철회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수산물 수입업체들은 이미 납부한 대규모 관세를 환급받는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2월 초 기준 여러 수입업체가 이미 수백만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담했으며,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미국 전국수산협회(NFI)의 저스틴 콘래드 위원은 올해 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관세 부담이 5억 8,0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6배(573%)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관세 정책은 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일부 수입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상황이 더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과 함께, 코스트코와 범블비, 네투노 등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예산 마감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설령 관세가 무효화되더라도 환급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트코의 CEO는 관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12월 11일자

美, 연말 연휴 앞두고 이빨고기 수요 급증

강한 수요 지속에 가격 상승 압력

2025년도 50주차(12월 8~14일) 기준 미국 내 이빨고기 도매 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간 수요가 과도하게 강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빨고기 가격은 올해 2분기 동안 관세 부과, 강력한 수요, 공급 부족이 겹치며 상승했으나, 이후 바이어들의 가격 저항이 나타나면서 일부 거래에서는 소폭 인하된 가격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초부터 시작되는 연말 연휴 수요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은 미국 소비자들이 고가 식품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시기로, 일부 판매업체는 재고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전했다. 특히 H&G 제품과 필렛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며, 필렛은 최근 10일간 폭발적인 주문이 이어져 컨테이너 1대 분량이 2주 만에 완판된 사례도 있었다. 업체는 다음 입고 물량이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연휴철 매입 이후 12월 하반기에는 도매 수요가 다소 둔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2026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앞두고 다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12월 16일자

러-노르웨이, 2026년 바렌츠해 쿼터 합의

대구 쿼터 16% 감축으로 91년 이후 최저

러시아와 노르웨이 간 경제왕래성 구역인 바렌츠해의 어획 할당량을 협의하는 노르웨이-러시아 공동어업위원회(JNRFC)가 2026년도 TAC 등에 합의하며 종료되었다. 이번 회의는 노르웨이가 러시아 수산 대기업 노레보와 무르만스크 2개사를 제재한 이후 처음 열린 협의로, 난항이 예상됐으나 노르웨이 측 제재를 유지한 채 타결되었다.

합의에 따라 바렌츠해 및 북부 구역의 2026년 대구 TAC는 28만 5,000톤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하며,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설정됐다. 반면 해덕대구 TAC는 과학적 자문에 따라 18% 증가

한 15만 3,293톤으로 결정됐다. 노르웨이에 배정된 물량은 대구 13만 9,827톤, 해덕대구 7만 6,345톤이다. 넙치 TAC는 1만 9,000톤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열빙어는 6만 9,177톤으로 3% 감소했다. 다만 열빙어는 내년에도 금어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러시아 기업 제재를 둘러싼 양 측 입장 차는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JNRFC의 추가적 기능은 계속 정지된 상태로 남게 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12월 23일자, UndercurrentNews, 12월 18, 19일자

바다여

한용운

바다여

너는 쉽 없이 밀려와

나를 깨운다

너는 한 번도

같은 물결로 오지 않으면서

늘 같은 이름으로 나를 부른다

수많은 길을 가졌으며

한 길로만 오는 너는

떠나는 것과 돌아움을

한 몸애 안고 있다

너의 깊은 곳에서는

울음도 노래도 없이

다만 묵묵히

시간이 자라고 있다

바다여

나는 오늘도

너에게서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운다



12월 오징어 국내 동향

연근해 생산 부진 속 수출 확대... 재고는 전월 대비 감소

❖ 생산동향(12월 연근해 오징어 생산, 전월 대비 소폭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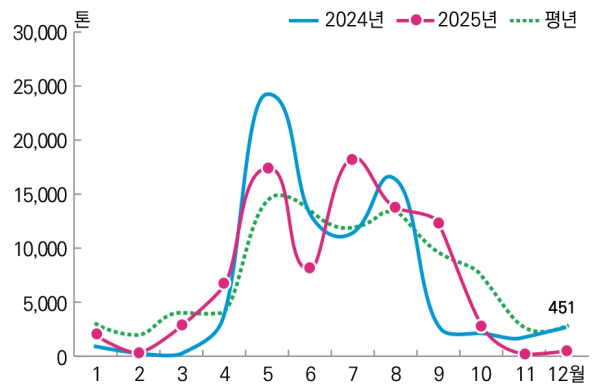
2025년 12월 오징어 생산량은 연근해산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전년 및 평년 같은 달보다는 여전히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해당 월에는 원양산 오징어 반입 실적은 없었다.

연근해산 오징어는 동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일부 형성되며 생산량이 전월보다 늘었다. 그러나 어장 형성이 전반적으로 미약해 전년 동월 대비 생산량은 42.8% 감소했다. 국립수산물과학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오징어채낚기 조업 척수는 229척으로, 전년 동월 267척보다 줄었다.

2025년 연간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3만 976톤으로, 여름철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으나, 10월 이후 어획 부진이 이어지며 평년보다는 19.1% 적었다.

해역별로는 주요 위판 지역인 동해권의 2025년 위판 비중이 27.8%로 전년과 평년 대비 크게 낮아졌지만, 남해권과 서해권의 비중은 증가했다.

한편, 2025년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5만 3,595톤으로, 전년 대비 19.3% 감소했으나 평년보다는 3.9%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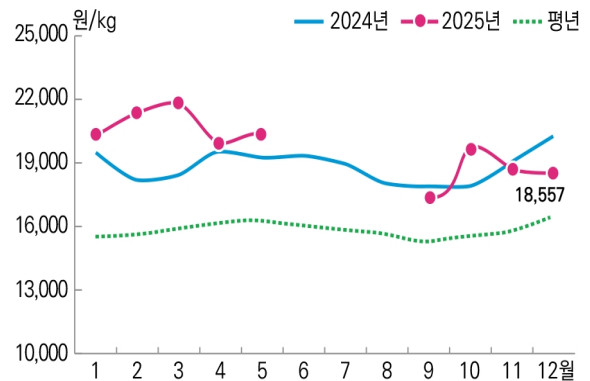


❖ 가격동향(도매가격은 전월 수준 유지)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연근해산 생산 증가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해 kg당 7,412원을 기록했다.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연근해산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26.8% 상승했다. 이는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11월 이후 신선냉장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연근해산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할인 행사가 지속되며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원양산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반입량 감소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8% 상승했다.





❖ 수출입동향(12월 오징어 수출량 전월 대비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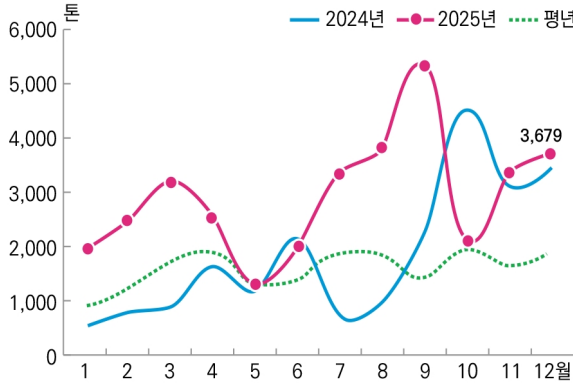
2025년 12월 오징어 수출량은 3,679톤으로 전월 대비 11.0% 증가했으며, 전년 및 평년 수준을 모두 웃돌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556톤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441톤), 미국(173톤), 아이슬란드(164톤) 등이 뒤를 이었다.

2025년 연간 오징어 수출량은 3만 5,013톤으로, 국제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7.7%, 평년 대비 81.4% 증가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약 2.8배 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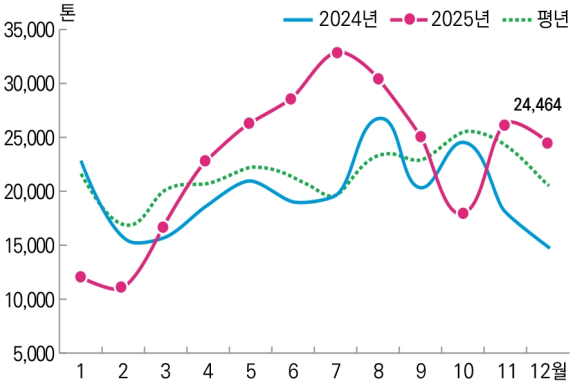
한편, 12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4,464톤으로 전월 대비 6.9% 감소했으나, 전년 및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64.6%, 20.1% 많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입국별로는 페루산이 2만 1,67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산(1만 5,700톤), 에콰도르산(3,009톤) 순이었다.

2025년 연간 오징어 수입량은 27만 4,897톤으로 전년 대비 15.2%, 평년 대비 5.7% 증가했다. 이는 페루 홈볼트오징어 어황 개선으로 페루산 수입이 전년 대비 59.1%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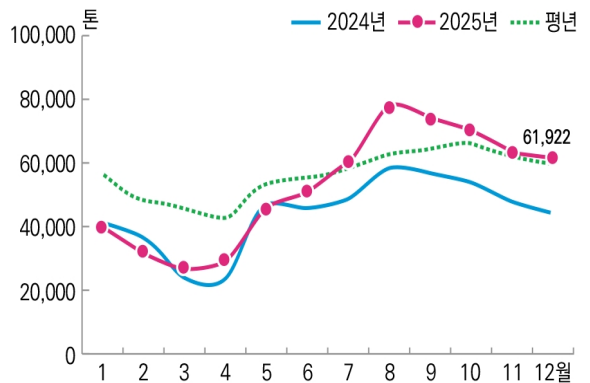


❖ 재고동향(12월 재고량,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2025년 12월 말 기준 오징어 재고량은 6만 1,922톤으로, 연근해산 생산 부진과 원양산 반입 감소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5.5% 줄었다.

재고를 구성 유형별로 보면, 연근해산 재고는 1만 5,121톤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했으며, 원양산 재고는 4만 6,801톤으로 6.2% 줄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재고량은 39.1% 많은 수준으로, 단기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고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월호

12월 명태 국내 동향

원양 생산 변동 속 수출 확대... 재고는 전년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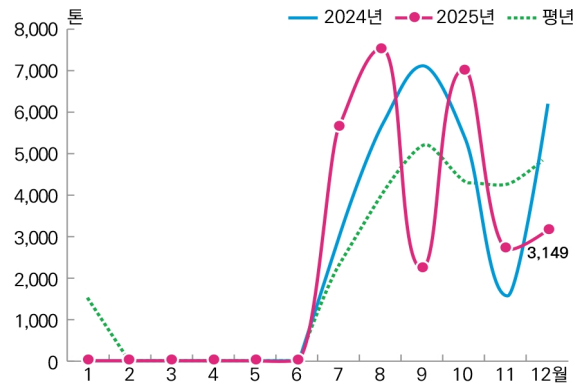
❖ 생산동향(12월 원양명태 생산, 전월보다 15% 증가)

2025년 12월 원양명태 생산량은 3,149톤으로 전월 대비 15.0%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8.4% 감소한 수준을 기록했다.

12월에는 부산항에 운반선과 조업을 종료한 원양트roller선 2척이 입항해 명태를 반입했다. 전체 원양트roller선 3척 가운데 1척은 이미 10월 중 국내에 입항한 바 있다.

12월까지 누적 원양명태 생산량은 2만 8,396톤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1% 줄었으나 평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6.9% 증가했다.

한편, 2025년 러시아 해역에 배정된 원양명태 쿼터는 2만 9,200톤으로, 추가 쿼터 배정에 따라 전년(2만 9,000톤)보다 늘었으며 전량 소진됐다. 해당 해역에서의 원양트roller어업은 2025년 6월 조업을 시작해 11월 종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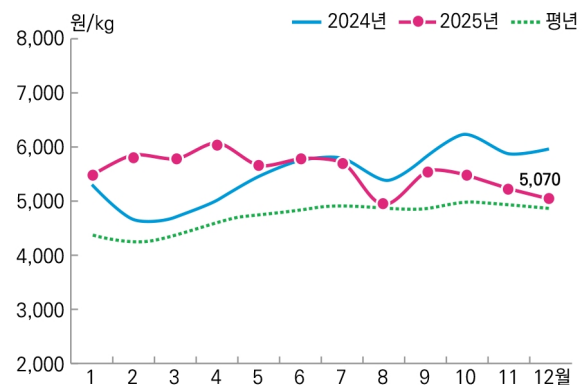


❖ 가격동향(12월 냉동명태 소비자가격, 3% 하락)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12월 들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보합세를 나타냈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대형 소매점의 할인 행사 영향으로 전월 대비 3.2% 하락해 kg당 5,070원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6%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에는 중품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비교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명태 가격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수출입동향(12월 수입량 전월 대비 5% 증가)

2025년 12월 명태 수출량은 3,568톤으로 전월 대비 7.3% 증가했다. 이 가운데 냉동명태 수출은 1,636톤으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1,088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냉동연육 수출은 태국으로의 출하가 줄면서 전월 대비 34.1%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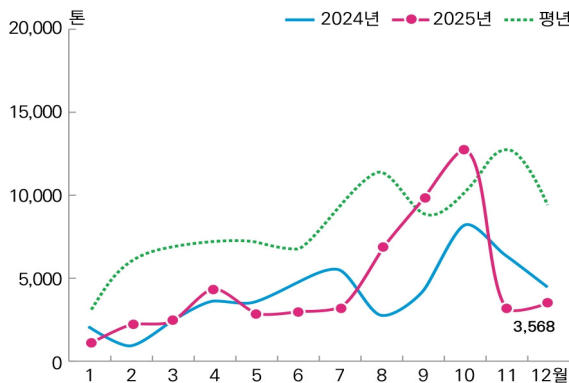
2025년 누적 명태 수출량은 5만 5,730톤으로, 국제가격 강세에 따른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다. 다만 평년과 비교하면 44.5%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12월 명태 수입량은 3만 658톤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7%, 14.5% 증가했다. 국가·제품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 1만 228톤, 냉동필렛 5,319톤, 냉동연육 4,221톤이었으며, 미국산 냉동연육은 7,212톤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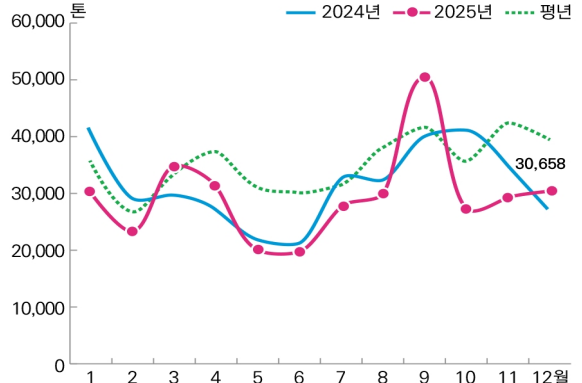
냉동명태 수입단가는 kg당 1.17달러로 전월 1.20달러 대비 2.7% 하락했다.

2025년 누적 명태 수입량은 35만 5,177톤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각각 5.7%, 16.4% 감소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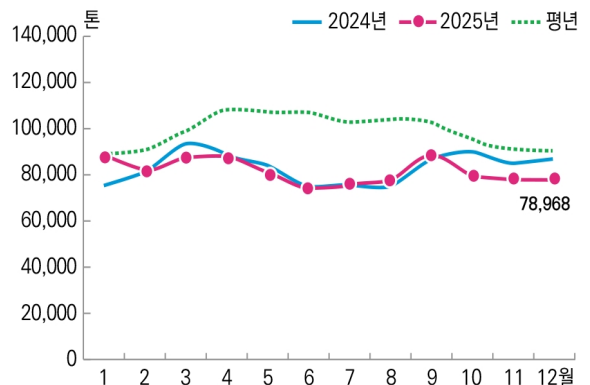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2월 재고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감소)

2025년 12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7만 8,968톤으로 전월과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국제 명태 수요 증가로 수입은 줄고 수출은 늘면서, 재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3%, 평년 동월 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KMI 수산관측 1월호